

Digital - E Company

SAMSUNG ELECTRONICS 2001 ANNUAL REPORT ...▶





CONVERGING CONVERGING ON SUCCESS

지난 2001년은 삼성전자의 32년 역사 가운데에서 저희의 경쟁력을 시험해볼 수 있었던 가장 도전적인 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01 애뉴얼 리포트를 통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의 발전과 고객 여러분의 가치 증진을 추구했던 저희의 노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1년 삼성전자는 제품과 경영을 개혁하여 업계를 리드하고, 디지털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제품과 프로세스를 혁신했으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 기여했습니다. 2001 애뉴얼 리포트에는 그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즉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Digital-**IT** Company가 되기 위한, 그 동안의 모든 노력이 담긴 연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Digital-**IT** Company 변화를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불어 제품과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디지털 컨버전스 혁명을 주도하여, 고객과 주주 여러분에게 더 우수한 가치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01년은 전 세계 경기침체와 미 테러사건 등으로 세계적인 유수 기업들조차도 최악의 경영위기를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저희 삼성전자는 매출 32조 4천억 원과 순이익 2조 9천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주가 역시 해외 경쟁업체들이 역성장을 한 것에 비해, 당사는 77% 상승하여 국내 시가총액 비중도 전년대비 4%가 늘어난 18%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IMF이후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구조조정 노력과 더불어 신제품 개발, R&D 투자 등의 미래 기반사업을 다져 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고객, 파트너, 주주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보다 우수한 가치 창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inancial Highlights

	단위:백만 원		단위:백만 U.S.\$	
	2001	2000	2001	2000
매출	32,380,375	34,283,752	24,419.6	25,855.0
영업이익	2,295,334	7,435,155	1,731.0	5,607.2
당기순이익	2,946,935	6,014,530	2,222.4	4,535.8
자산총계	27,919,406	26,895,046	21,055.4	20,282.8
부채총계	8,445,657	10,702.2	6,369.3	8,071.0
자본금 계	882,117	881,675	665.2	664.9

Key Financial Statistics

	2001	2000
자기자본비율	69.7%	60.2%
차입금비율	14%	25%
자본 수익율	17%	41%
순차입비율	-0.6%	9%
EBITDA/매출	17%	29%
주당 순이익	₩17,461 US\$13.17	₩35,006 US\$26.40

- 위의 재무관련 지표는 계열사와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은 삼성전자 본사의 재무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 2001년도 연말 환율기준 US\$1=1,326원을 적용했습니다.

매출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아래에서 대부분의 선진 기업들이 두자리 수의 매출 하락을 경험했음에도 당사의 경우는 매출이 소폭 감소한(6%) 32.4조 원이었습니다. 이중 국내 판매는 10.5조 원, 수출은 21.9조 원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액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영업이익

전반적인 IT산업의 불황으로 반도체 업계를 포함한 동종업계 경쟁사들이 대부분 적자를 기록한 반면 당사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 3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정보통신 부분의 세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 달성에 기인합니다.

순차입비율

IMF 이후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차입금 축소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01년 차입금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4천억 원 감소한 2조 7천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사 순차입 비율은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세계적인 우량기업의 재무구조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PEOPLE



TECHNOLOGY SAMSUNG IS CONTINUING SOLUTIONS
TO LEAD & INNOVATE



IDEAS



“글로벌 리더십은 투명한 기업 경영에서 시작됩니다”

글로벌 리더의 제1조건은 세계 수준의 제품과 경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시간 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1년 한 해는 그간의 연구와 투자의 결실을 풍부하게 거둔 한 해였습니다. 4개 핵심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는 한편, 우리의 이사진과 경영진 역시 최상의 노력과 능력을 집중하여 경영 혁신과 수익률 증대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결과들은 투자자 및 기업 관계자들의 평가에서도 여실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01년 2월, 삼성전자는 기업지배구조개선 평가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대투자가 서비스 전문기관)로부터 “기업지배구조 최우수상(Excellence in Corporate Governance Award)”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의 기업이자 이 상을 받은 세계의 다섯 개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4월에는 Finance Asia가 매년 실시하는 “최고기업” 조사에서, 경영, e-Commerce 전략, 주주 가치평가 부문의 국내 1위에 선정됨으로서 다시 한번 대외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5월에는 IR 부문 전문지인

「IR Magazine」이 주관하는 2001 Asia Award에서 영예의 “한국기업 Best IR”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춘(Fortune)」지와 「포브스(Forbes)」지가 매년 실시하는 조사 발표에서도, 삼성전자가 2001년 세계 기업순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춘(Fortune)」지의 발표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세계 500대 전기, 전자 장비업체 중에서 7위를 차지하고, 아시아기업 순위로는 24위, 종합부문에선 92위를 차지했습니다. 「포브스(Forbes)」지의 세계 500대 기업 선정에서는 반도체 장비분야에서 1위, 종합부문에서 70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만족할 만한 평가들과 함께 2001년의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는 국내 업계 최고의 위치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대외적인 신용등급이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래 최고수준으로 올라선 점입니다. 5월 16일, 무디스(Moody's)사의 발표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이 Baa3에서 Baa2로 상향 조정되어 IMF 이후 최고의 신용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스탠다드 & 푸어스(Standard & Poor's)사도 6월 18일에는 BBB-에서 BBB로, 11월 14일에는 다시 BBB+로,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두 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기록한 지금까지의 최고등급에는 한단계 못 미치지만,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위협적인 금융 위기를 겪고 난 이후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만한 성과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제품혁신 그리고 투명경영을 통해 고객과 주주 여러분에게 더 많은 가치를 안겨드리는 성공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종용
대표이사 부회장

... “디지털 컨버전스

... 혁명의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고객 및 파트너, 주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0년도는 대외적인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31%의 매출 신장을 포함하여 66%의 영업이익의 성장, 그리고 90%의 순이익 성장이라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얻은 해였습니다. 저희는 2001년에도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되리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메모리 가격의 급격한 하락, IT산업의 침체, 미국 테러 사건 등의 돌발적인 요인들로 가뜩이나 냉각된 세계 경제가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1/4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매출 5%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영역이 대체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2000년도 4/4분기 대비 10%의 영업이익 상승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과 생활 가전 부문의 2001년 영업이익의 2/3가 1/4분기에 집중되어, 반도체 부문의 경영손실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10억 원)

SALES W22,380.4 -5.6% OPERATING PROFIT W2,295.3
Korea 32.4% SALES OUTSIDE KOREA 67.4% SALES

-69% Net INCOME W2,246.9 -51% SALES in KOREA
by Unit >> Digital Media NETWORK W9,438.4 +0.9

2/4분기에는 1/4분기에 비해 매출이 7%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도 63% 줄어들었습니다. DRAM과 LCD 가격이 하락하면서 디지털 미디어와 반도체 매출은 각각 12%, 27% 떨어진 반면, 강력한 내수시장의 수요에 힘입어 정보통신과 가전의 매출은 각각 22%, 14% 성장했습니다. 정보통신 부문의 수익은 급상승하여 28%의 수익을 기록하고 나머지 분야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2001년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3/4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매출은 10%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97%까지 떨어졌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부문만 4%라는 매출 신장을 보였을 뿐 생활 가전과 반도체 부문의 매출이 또 다시 각각 26%, 25%로 떨어진 가운데, 정보통신 부문의 매출도 5%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부문은 전체적인 매출 하락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신제품이 히트상품으로 각광 받고 주요 부품 장비가 주문 수출되면서 영업이익은 21% 상승했습니다. 반도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디지털 미디어와 가전 분야에서도 각각 33%와 87%의 영업이익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4/4분기에는 매출 17% 신장으로 1/4분기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영업이익이 3/4분기 대비 279% 치솟으며 전체적인 회복 국면 속에서 2001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미디어, 생활 가전, 정보통신, 반도체 부문은 매 분기별 10.6%, 11%, 20.6%, 25%씩 성장해나갔습니다. 생활 가전과 반도체 부문이 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동안,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통신 부문은 새로운 디지털 TV와 휴대폰의 수출로 영업이익에 있어 각각 70%, 35% 성장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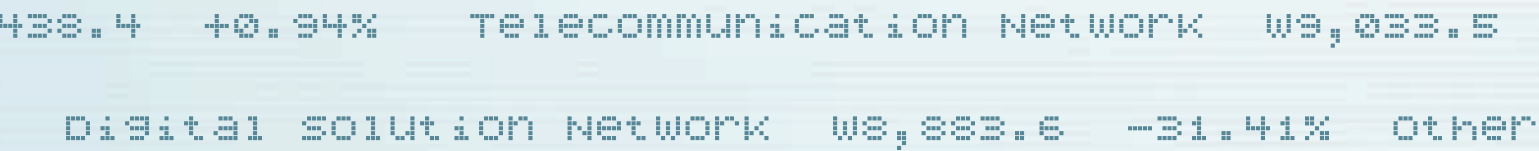
종합하면 2001년의 전반적인 경영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전략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4개 부문 중 3개 부문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정보통신 부문이 전년 대비 18.6% 급속히 성장하여 전체 매출의 28%까지 차지했고, 디지털 미디어가 29%, 반도체가 27%로 고루 안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 메모리 시장의 붕괴로

매출이 전년 대비 32% 떨어지면서 2000년 전체 매출의 38%보다 하락한 것입니다. 생활가전 부문은 12%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지하다시피, 삼성전자는 오는 2005년까지 매출 80조 원과 브랜드가치 310억 달러를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1년 매출이 약 5.6% 떨어진 3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에서도, 부채를 효율적으로 상환해나감으로써 부채 비율을 66%에서 약 43%정도로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부채비율을 기반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수익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목할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2001년 한 해 동안 메모리 분야의 경쟁사들이 막대한 손실과 파산에 직면해 있는 동안 삼성전자는 비용 절감은 물론 보다 마진이 높은 제품으로 주력생산제품을 전환하고, R&D 영역을 SOC와 다른 비메모리 분야로까지 넓혔다는 점입니다. 2001년 말에는 DRAM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또 한 번 4%정도 증가하여 27%까지 올라가면서 이 분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이러한 토대들을 기반으로 매출과 이익 모두에서 주주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이낸셜 수치나 요인들은 그간의 비즈니스 성과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삼성전자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려 하는 지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2000년 11월, 삼성전자는 디지털 컨버전스를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조직을 “Digital-**₩** Company”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에 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Digital-**₩** Company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Digital-**₩** Company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자, 그것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Digital-**₩** Company는 삼성전자라는 조직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으로써 구체화되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화해 나감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임무는 바로 기술, 생산,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통합 (Convergence)과 협력을 촉진하면서 혁신을 위해 내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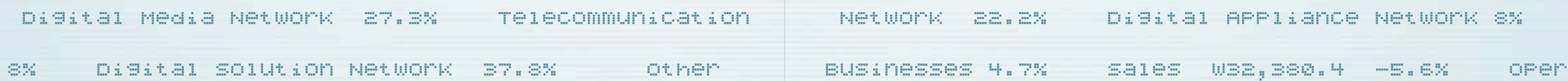
독립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 집중했던 부서 중심의 조직에서 포트폴리오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고, 홈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 오피스 네트워크, 핵심 부품 사업의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위해 다수의 부서들과 단위들을 한데 묶어 통합 솔루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CDMA 단말기, 전자레인지, DRAM, SRAM, TFT-LCD, 컴퓨터 모니터, VCR 등 일곱 개의 세계 수준의 제품을 기초로 한, 홈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 오피스 네트워크, 핵심부품사업의 네가지 전략적 포트폴리오는 Dell, AOL Time Warner, Sony, Microsoft사와 같은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통합과 협력은 물론이고 포트폴리오 각각의 내부에서, 서로의 통합(Convergence)과 협력을 위한 촉매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 세대의 디지털 제품과 솔루션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바로 Digital-**E** Company를 위한 “Digital”의 핵심 개념입니다.

주주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1월 삼성전자의 사업들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총괄은 이제 “Digital Media Network”가 되고, 정보통신 총괄은 “Telecommunication Network”로 바뀌었습니다. 생활가전 총괄은 “Digital Appliance Network” 그리고 반도체 총괄은 이제 “Device Solution Network”로 새 이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통합(Convergence)과 협력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 디지털이밸리 내에 디지털 미디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R&D 센터를 합병한 것은 모든 연구분야에서 순조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새로운 명칭은 또한 각각의 조직이 지향하는 새로운 목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Telecommunication Network는 휴대폰 한 부문이 2001년 한 해 동안 10조 원의 순수익을 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Device Solution Network”라는 이름에서 강조됩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TFT-LCD 기술과 칩이 내장된 시스템 장비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메모리 칩 분야의 2001년 매출 53% - 물론 2000년의 64.7%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 는 단순한 메모리 생산기업의 이미지를 뛰어넘고자 하는 삼성전자의 그간의 노력이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물론 통합과 협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운영 방식에 따라 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Digital-**E** Company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임무가 프로세스의 최적화입니다. 공급망에 초점을 맞춰, 각각의 프로세스 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창출, 촉진하고 능률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정보기술을 적용할 것입니다. 더불어 연구실에서 마케팅 부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치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나갈 것입니다. 2001년, 삼성전자는 핵심적인 IT 인프라인 글로벌 ERP 시스템 완성을 통해 글로벌 e비즈니스 프로세스로 가는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를 통해 **E** 프로세스 즉, 삼성전자의 내부 프로세스를 연결, 통합하고 내적, 외적 협력을 이룰 수 있으며, 또한 파트너와 공급자, 소비자와의 작업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작업 능률과, 의사 결정 시간과 질, 가격경쟁력에서 획기적인 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Digital-**E** Company에서 “**E**”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번 애뉴얼 리포트를 통해, Digital-**E** Company 구축을 위한 저희의 임무와 이를 통해 삼성전자의 능력이 어떻게 혁신되는 지 그리고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 어떻게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께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2001년을 함께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명백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컨버전스 혁명의 선두기업으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고있다는 점입니다. 고객 및 주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윤종용
대표이사 부회장



FORM

MOBILITY

SAMSUNG IS COMMUNICATING ON A HIGHER LEVEL

USABILITY

FUNCTION

Convergence Showcase

디지털 컨버전스 혁명의 주도권은 디지털 컨버전스의 거센 물결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기업에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컨버전스 혁명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보다 풍요로운 디지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변화하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과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디자인 센터의 CNB그룹(The Creating New Business Group)은 디지털 컨버전스의 현재 위치를 비롯하여 앞으로의 향방을 가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제품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재! 지금부터 디지털 컨버전스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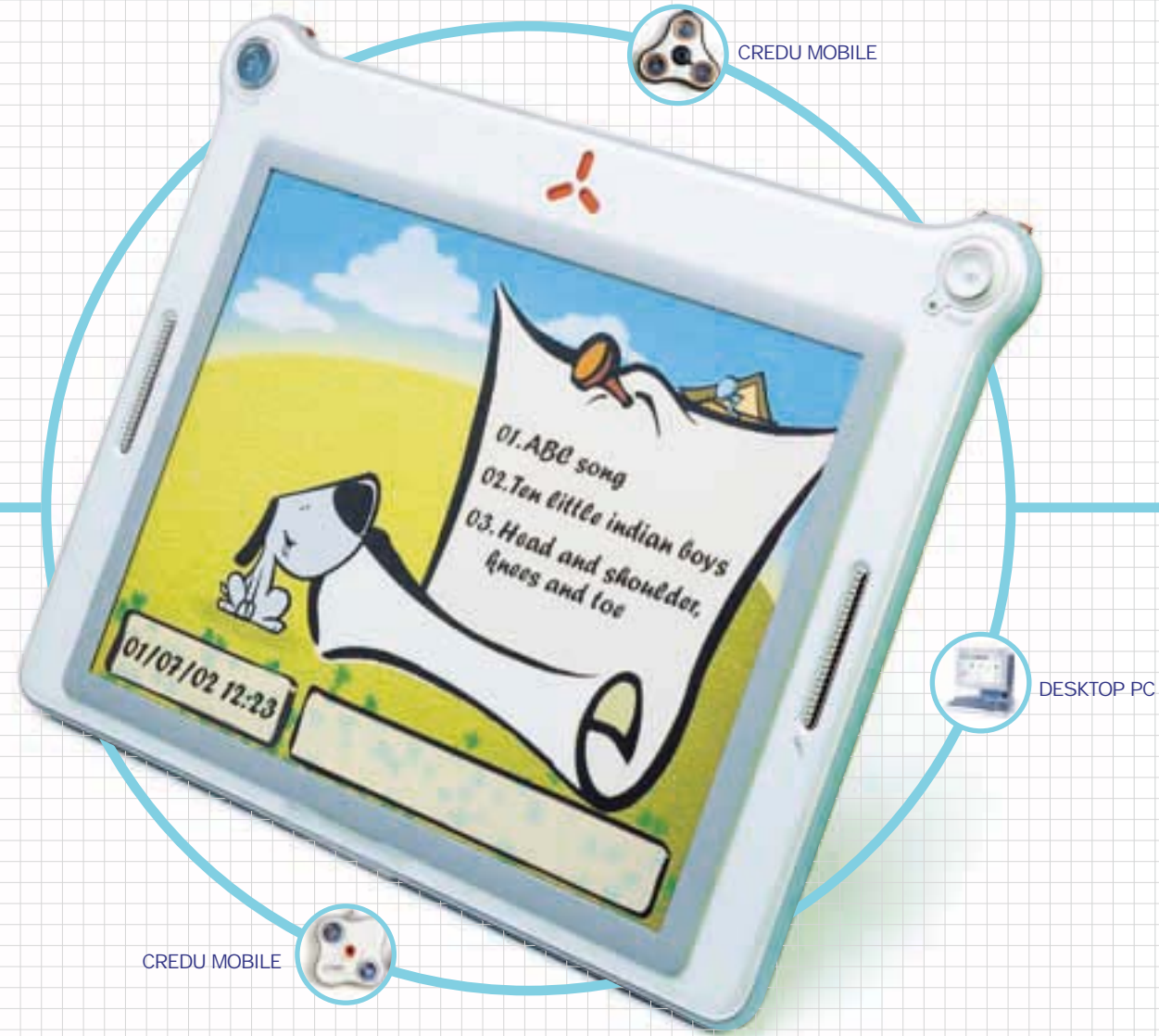
제품: MY SOLE FAMILY
 디자이너: 안성진 선임, CNB 그룹
 주요특징: 전동 삼각대 장착 및 100%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한 디지털 캠코더
 비디오 편집 및 e-mail 기능을 지원하는 컨트롤러



세르게이 크르세프(Sergey Khrushev) / DVD 개발 그룹

“분명히 함께 있었지만 정작 사진이나 테이프에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뷰파인더 뒤에서 기기를 작동하는 사람이지요. 이 새로운 초소형 캠코더는 잃어버린 그 친구나 가족을 되찾아 주는 획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홀로 뚝 떨어져 뷰파인더를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모컨으로 렌즈나 삼각대를 조정하여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당신의 모습을 프레임 안에 완벽하게 담을 수 있으니까요. 촬영을 마친 후에는 역시 리모컨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편집도 가능하며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업로딩 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CREDU
 디자이너: 여영주 책임, CNB 그룹
 주요특징: 아동용 태블릿 컴퓨터
 GPS 자동 무선레이더가 장착된 분리식 디지털 카메라



쿠마 브라타 다스(Kumar Brata Das) / 컴퓨터 시스템 사업부

“아이들은 활동적이고 충동적이지요. 어른들은 상상도 못할 기발한 생각들을 하거나 자기들만의 세계에 푹 파묻혀 부모들의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CREDU라는 이름의 이 작은 태블릿 컴퓨터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오락은 물론, 기존 컴퓨터가 제공하지 못했던 학습에 대한 재미와 참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또한 GPS 무선레이더가 장착된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제품: HOMMANAGER
 디자이너: 여영주 책임, CNB 그룹
 주요특징: 스케줄 및 쇼핑 리스트 작성 / 안전한 전자 결제
 홈 네트워크 컨트롤러 /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기능



쿠마 브라타 다스(Kumar Brata Das) / 컴퓨터 시스템 부서

“주부들의 하루 일과는 한 순간도 쉴 틈 없이 뻘뻘한 스케줄의 연속입니다. 요리와 청소는 물론 쇼핑하고 은행 업무도 봐야 합니다. 아이들도 돌봐야 하지요. 우리의 HOMMANAGER는 주부들의 고된 가사일을 아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스케줄 작성과 같은 PDA의 기능과 더불어 쇼핑 물에 접속하여 쇼핑 목록을 체크해 주기도 하며, 들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전자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는 걸 깜빡 잊은 전등이나 에어컨을 작동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컨트롤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돌보나구요?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기능이 있어 CREDU앞에 앉아있는 아이를 찾는 일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제품:SELFTEL
 디자이너: 박준상 선임, 무선통신 사업부
 주요특징: 휴대폰 기능, 디지털 TV, 혹은 e-Book 판독기
 콘텐츠와 하드웨어의 편리한 업그레이드(휴대폰 기능, 디지털 TV, 혹은 e-Book 판독기 등)
 각 콘텐츠/하드웨어별 고유의 직관적 인터랙션
 2002 IDEA 은상 수상



MOBILE PRINTER

DIGITAL TV

FUNCTIONAL SKINS



케이티 맥마혼(Katie McMahon)/ 무선통신 사업부

“우리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전자 제품들은 어떤가요? 대부분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기능에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SELFTEL**은 자유자재입니다. ‘Skin’의 형태로 디자인된 휴대폰이나, 디지털 TV, 혹은 e-Book 판독기 등을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선택,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Skin’은 콘텐츠나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제거하는 기존 여러 단계의 과정을 간단한 착탈 방식으로 단순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콘텐츠나 하드웨어에 따라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인터페이스/인터랙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DIGITAL HOME HUB
 디자이너: 이경훈 책임, 네트워크 디자인팀
 주요특징: 로컬 및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원활한 접속
 어떤 네트워크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용이한 업그레이드

SET-TOP BOX

WEBP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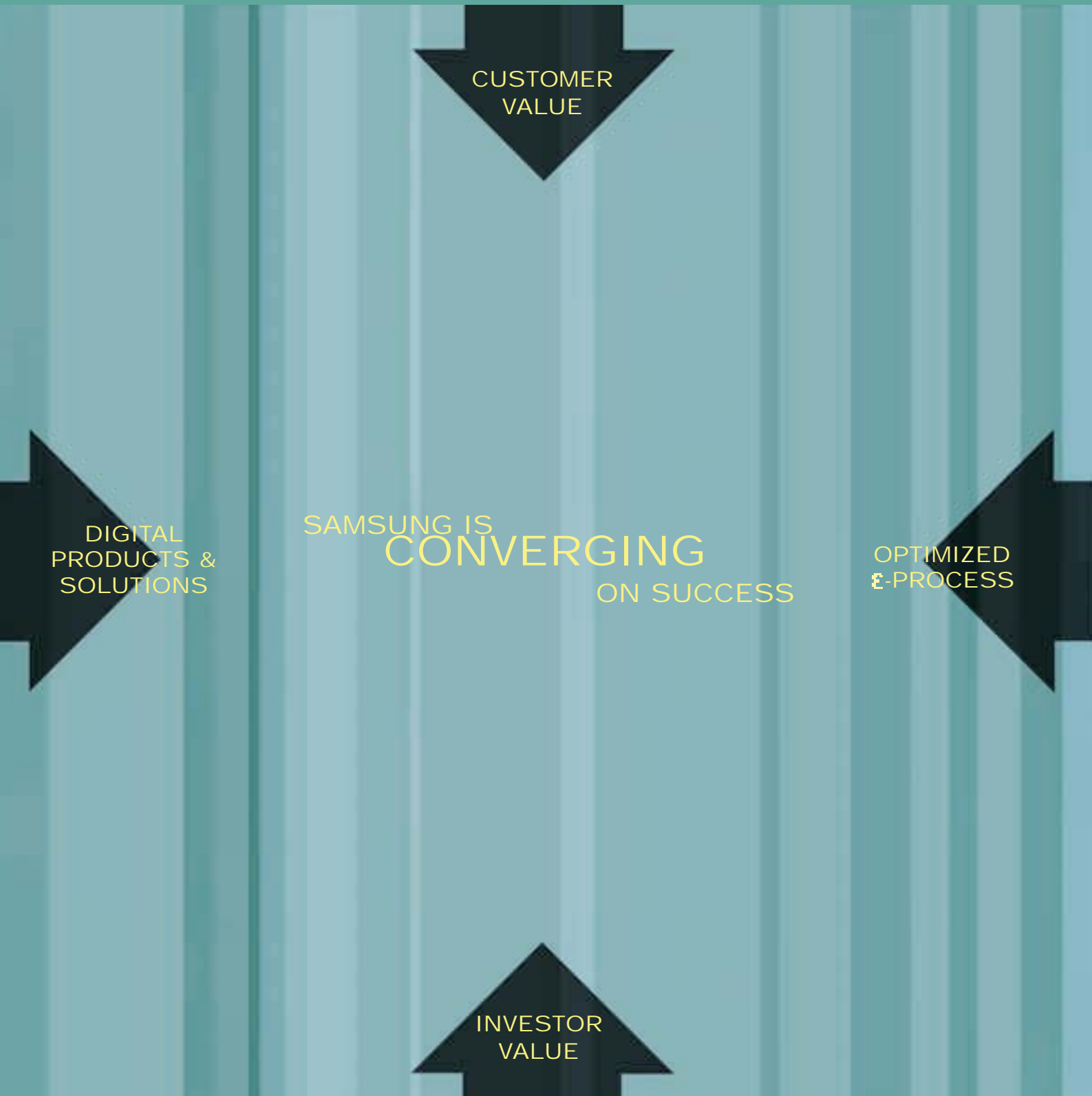
DIGITAL TV

REFRIGERATOR



마크 윌리엄스(Mark Williams)/ 네트워크 기술기획 그룹

“**DIGITAL HOME HUB**는 단순히 여러 대의 PC들을 인터넷에 연결시켜주는 홈 게이트웨이 이상의 개념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집에서 편안하게 사무용, 학습용, 오락용 인터넷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 장치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또한 서버인 동시에 언제라도 새로운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듈을 적용하여, 가족 수가 늘어나거나 요구사항이 변하더라도 언제라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Digital - ε Company

Task 1: 혁신적인 디지털 제품과 솔루션으로 고객 가치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더 새롭고 만족스러운 가치를 안겨드리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은 끊임이 없습니다. 핵심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여기에서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표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노력은 기업의 조직구조와 핵심 사업을 크게 변화시킨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우선 Digital-ε Company 에 있어 'Digital'은 홈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 오피스 네트워크, 그리고 핵심 부품 사업의 4개 핵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전체 사업 조직을 Digital Media Network, Telecommunication Network, Digital Appliance Network, Device Solution Network 의 4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했는데, 각각의 이름에 붙은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조직들은 각각의 네트워크 안에서, 혹은 네트워크 간에, 또는 Dell, AOL Time Warner, Sony, Microsoft와 같은 전략적 제휴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자원의 공유를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더 극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바로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의 이러한 준비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세계가 자라날 비옥한 토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그 이상을 위해—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합니다”



삼성전자의 디지털 제품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이제 이 두 세계적 기업이 손을 맞잡고 디지털의 신세계를 개척하려 합니다. 기업과 기업, 기술과 기술의 결합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PC, 디지털 기기, 정보 가전 등 디지털의 모든 분야를 혁신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모든 제품과 기능들을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들어 가는 세상 -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신세계입니다.



TV 삼성전자는 2001년 한 해 동안 1천만 대 이상의 TV를 수출하여 전세계 TV 시장의 Top 3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63인치 플라즈마 TV와 40인치 TFT-LCD TV를 선보임으로써 차세대 플라즈마, TFT-LCD 그리고 LCoS(Liquid Crystal on Silicon)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의 리더임을 재확인했습니다. 2002년에는 평면 TV 라인과 더불어 15, 17, 22, 24, 29 그리고 40인치 와이드 스크린 TFT-LCD TV 생산 라인을 보강하여 업계 1위를 목표로 더욱 힘차게 매진할 것입니다.

1. 63인치 플라즈마 TV

세계 최대의 플라즈마 스크린이 깊고 풍부한 영상미를 보여줍니다.

2. NEXiO S150 Handheld PC

스타일과 파워, CDMA2000 휴대폰 기능으로 Post-PC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3. DVD-V2000 COMBO DVD/VCR

COMBO 한 대로 DVD와 VCR의 본래 기능은 물론 더 다양해진 홈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4. Q10 Notebook PC

두께 19.8 mm, 무게 1.29 Kg 정도로 작고 가벼우며, Wi-Fi 무선 LAN과 5.1 서라운드 사운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5. VM-A990 Mini DV 캠코더

삶의 특별한 순간을 생생한 디지털 화질에 담아 이제 집에서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6. SyncMaster 171P TFT-LCD 모니터

F.A. Porsche에 의해 디자인된 세련되고 파워풀한 스타일이 모니터의 디자인과 기능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VCR & 셋톱 박스 1979년 VCR 사업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삼성전자는 2001년 세계 시장 점유율 정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VCR 사업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딩 기술을 리드하기 위해, AOL Time Warner사와 전력적으로 제휴하여 하드 드라이브급의 저장용량을 지닌 인터넷 케이블TV 셋톱 박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SDTV와 HDTV용 셋톱 박스 개발과 함께 디지털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여 명실공히 지상파, 위성, 케이블 방송 모두의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DVD 플레이어 지난 한해 동안 삼성전자의 콤비네이션 DVD/VCR 제품군은 전세계적으로 1백만 대 이상 판매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로 시장 개척의 신기원을 기록했으며, DVD 플레이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세계 2위로 도약했습니다. 2002년에는 콤비네이션 DVD/PVR, High-end HD-DVD, 10인치 TFT-LCD 스크린의 세계 최초 휴대용 플레이어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으로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코더 2001년은 캠코더 사업이 매우 바쁘게 움직인 한 해였습니다. 일반 PC에서도 편집이 용이한 대중적인 6mm 디지털 캠코더로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캠코더 라인업에 다섯 개 이상의 새로운 Mini DV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2002년에는 세계 캠코더 시장의 3위권 진입을 목표로 디지털 캠코더 제품군을 더욱 확장해나갈 것입니다.

MP3 플레이어 이미 세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있는 Yepp MP3 플레이어 제품군은 2001년 한 해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기존 제품보다 더 작고 가벼운 디자인,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 지원기능, FM라디오 수신, 더 빠른 USB 1:1 전송기능과 최초 MP3 CD 개발 등의 요인들이 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002년에는 파일 저장용량을 2배 증가하고, 하루종일 좋은 음질이 유지되도록 배터리 용량을 늘린 2배속 MP3와 같은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MP3 플레이어의 혁명을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컴퓨터 펜티엄 4 프로세서 1.7GHz와 주문방식에 따라 72가지의 옵션이 가능한 매직스테이션 PC는 국내 시장 점유율의 약 50%를 차지하며 2001년에도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1.2GHz, 훨씬 더 길어진 배터리 수명, no-boot MP3 플레이어백과 기능을 적용한 유선형 펜티엄 III가 전세계 소비자들의 인기를 모으며 시장 수요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두께 20mm 이하, 무게 1.3Kg이하의 가벼운 노트북 및 Wi-Fi 무선 LAN 접속 기능과 지문인식 보안장치가 장착된 노트북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리스타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집안 어디서나 음악과 비디오, 사진, TV시청까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최초의 홈 미디어 센터 PC를 세계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모니터 SyncMaster 모니터 출시 14년째를 맞는 삼성전자는 지난 한 해에도 2천 2백만 대 이상의 모니터를 수출하여 세계 시장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전세계 유명 Award 수상이 빛나는 CDT와 TFT-LCD 모니터는 판매도 각각 170%와 200% 상승하여, 20%가 넘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TFT-LCD는 2001년에 2백 60만 대를 수출하는 등 연간 두 배 이상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02년에는 매달 생산량을 50만 대에서 70만 대 이상으로 늘리고, 평면 디스플레이 역시 5백만 대 이상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ost- PC 장비 2001년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발표된 Post-PC 장비 중 가장 뛰어난 성능 가진 NEXiO S150 Handheld PC를 선보였습니다. Window CE 3.0을 기반으로 206MHz의 강력한 ARM 프로세서가 적용된 NEXiO는 800 x 480 픽셀의 5.1인치 LCD 디스플레이, 144Kpbs의 데이터 수신력으로 빠른 인터넷 서핑이 가능한 CDMA 2000 휴대폰 기능,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VGA

포트, GPS 네비게이션, 디지털 사진촬영을 위한 애드온 방식의 모듈, Wi-Fi 무선 LAN 접속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NEXiO의 수출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디지털 컨버전스가 일구어낸 뛰어난 결과들을 더욱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새로운 모듈과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프린터 2001년 한 해 동안 20개 이상의 레이저, 잉크젯 프린터 및 향상된 성능과 팩스 기능 등의 복합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프린터 판매가 3백만 대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2002년 역시 스캐너, 프린터, 팩스 기능의 컨버전스를 통해 더욱 첨단화된 다기능 프린터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성장세를 타고 있는 네트워크 프린터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50%이상의 내수 시장 점유율과 이 분야에서의 조기 성장을 기반으로 오는 2005년까지 미국 내 상위 5대 브랜드 중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토리지 COMBO 드라이브(CD-RW/DVD-ROM)가 업계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는 2001년 다시 한 번 Optical Storage 분야에서 세계 정상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2002년에는 40배속 COMBO, 48배속 CD-RW 등 속도와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 업계 일류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하드디스크 분야에서는 기록용량이 80Gb에 이르는 SpinPoint V80 시리즈를 선보이며 세계 유수의 업체들과 기술 경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저소음 설계 기술과 신뢰성을 자랑하는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는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세계 데스크탑 PC용 하드디스크 분야에서는 Top5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는 2002년 내에 160Gb 기록 용량에 7200rpm 스피들 모터를 채용한 고성능 제품을 선보이며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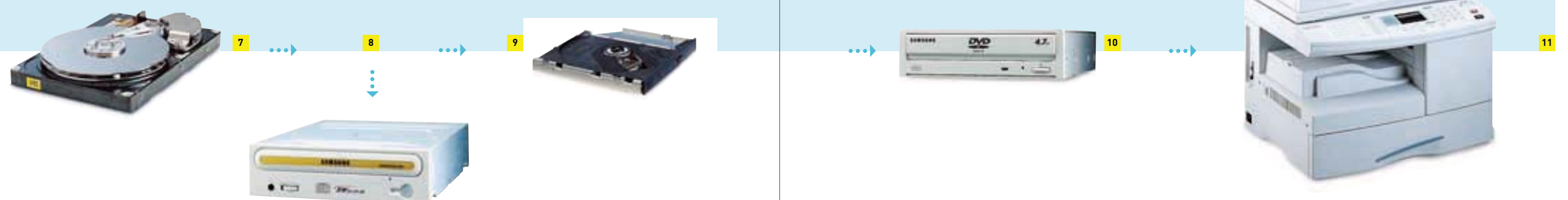
7. SpinPoint V40 시리즈 80Gb 하드 드라이브
자꾸 쌓여가는 디지털 사진 데이터와 비디오 파일, MP3 콜렉션에 위해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8. SW-224B 24배속 CD-RW 드라이브
최고 24배속이므로 백업CD를 굽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3분 뿐입니다.

9. SN-308B Slim COMBO 드라이브
이제 노트북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CD를 굽고 DV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MR-A02B DVD-RAM/R 드라이브
4.7Gb 버너 하나면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기록하고 DVD를 이용하는 것 등 다양한 일들이 매우 쉬워집니다.

11. SCX-5312F 다기능 레이저 프린터
신속한 12 ppm 출력, 이중복사, 자동전원공급 복사기능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중국 대륙의 커뮤니케이션 장막-
삼성전자의 CDMA 기술이 활짝 열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최첨단 3G 글로벌 무선 통신 혁명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미 3G 무선 통신 기술의 최고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삼성전자는, CDMA2000과 WCDMA 에어 인터페이스의 표준을 이루는 CDMA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최첨단 이동통신 장비들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을 비롯하여 신속한 정보에 목말라 하는 전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보다 완벽하고 신속한 차세대 무선 통신,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Mobile Phone 5천만 대째의 단말기 생산을 필두로, 삼성전자의 2001년은 기운차게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2천 8백만 대의 CDMA, CDMA2000, GSM, GPRS 그리고 TDMA 단말기 수출을 추가함으로써 세계시장 점유율 랭킹 6위에서 4위로 부상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2년에는 1억 대 생산이라는 기록을 무난히 수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2001년 삼성전자는 전세계 CDMA 단말기 판매 1위를 5년 연속 고수했으며,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GSM, GPRS, TDMA 등의 세계 주요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GSM과 남미의 TDMA 시장에 진입하고, 유럽에 GPRS 단말기를 수출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삼성전자 스페인 사업장은 GSM 업계 최초의 TL 9000 Hardware 인증을 획득했으며, 중국에 GSM과 CDMA 단말기 합작공장을 설립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모든 GSM과 GPRS 표준에 맞는 표준승인을 획득하여 마케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1년 출시된 모델들에는 혁신적인 기능들이 많이 적용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통식으로 열리는 폴더, 자동조절기능이 있는 안테나, 발신자 표시 및 메시지 디스플레이를 위한 외부 액정화면, 생생한 전화벨 소리를 위한 40회음 다중음성장치와 GPS 네비게이션 기능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2년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5G와 3G 네트워크의 초고속 데이터처리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CD성능의 주문형 오디오, 정교한 화상의 주문형 비디오와 화상회의는 물론, 광대역 인터넷도 가능하게 하여 모바일 멀티미디어 통신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Network Systems 삼성전자는

1996년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 서비스, 2000년 세계 최초의 CDMA2000 1X 서비스를 상용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2년 상반기에는 CDMA2000 1X EV-DO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하여, 전 세계 3G서비스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CDMA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CDMA2000과 WCDMA 분야의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삼성전자는 Hutchison Telecom Australia와 Sprint PCS사에 CDMA 장비를 추가 공급한데 이어, 중국의 주요 4대 지역인 천진, 허북, 상해, 복건에 150만 회선상당의 CDMA2000 1X 시스템으로 상용화 중입니다. 또한 중국 Shanghai Bell과의 CDMA시스템 합작사 설립을 통해 오는 2006년까지 7천만 회선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거대 중국 CDMA 시스템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광대역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꾸준히 약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멀티미디어와 데이터 전송 능력을 가진 차세대 네트워크 AceMAP™과 Softswitch 등의 장비를 선보였으며,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과의 ADSL 및 Cable Modem 계약을 통해 세계 4위의 선두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2002년에는 전세계 광대역 네트워크 분야의 세계 2위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SCH-X590 CDMA2000 1X 단말기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꿈의 휴대폰, 사용자가 직접 전화벨 소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SCH-V300 CDMA2000 1X EV-DO 단말기
세계 최초의 EV-DO 단말기로 최고 데이터 수신율 2.4Mbps를 지원하며 모바일 광역화 시대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3. SGH-A300 GSM 단말기
수신 번호와 메시지를 알아보기 쉽게 폴더 외부에 또 하나의 LCD 스크린이 있습니다.

4. SPH-I300 CDMA PDA 단말기
Palm-OS 기반의 PDA와 휴대폰의 완벽한 컨버전스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5. SGH-T100 GSM 단말기
기존 STN LCD 스크린 보다 화질이 뛰어난 4096컬러 디스플레이 TFT-LCD입니다.

6. AceMAP™
음성, 데이터, 광대역의 통신부하 등의 신속하고 정확한 연계가 가능합니다.

7. 3G PICO BTS
진정한 3G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구현하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2



3



4



5



6



7



“가족의 안락함과 행복한 미래-
삼성전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리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편안하고 안락하며 동시에 능률적이고 안전한 곳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각각의 제품을 혁신하여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한편, 홈비타 네트워크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생활문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홈비타는 집 안 곳곳에 있는 전자 제품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컨트롤하는 것은 물론, 가족의 안전까지도 지켜드립니다. 홈비타가 보여드리는 수준 높은 생활 환경 - 이제 여러분을 홈 네트워크 세상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홈 네트워크 2001년은 삼성전자의 홈 네트워크 솔루션이 전 세계에 첫 선을 보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드릴 홈비타 솔루션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전 쇼(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최초로 TCP/IP 기술 기반의 디지털 홈 네트워크를 시연함으로써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홈 오토메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 기술은 웹패드, WAP기능을 가진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가정 내 모든 기기들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생활, 시간 그리고 생각까지 바꾸어가는 첨단 기술입니다. 현재 홈비타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100세대에 시범 적용된 것을 비롯하여, 서울과 홍콩의 전시장에서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에어컨 삼성전자는 2001년에 주거용보다 30배 이상 수익성이 높은 상업용 에어컨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상업용 에어컨에 적용된 DVM(Digital Variable Multi)방식의 가변냉각제 플로우 시스템은 한 대의 실외기에 여러 종류의 실내기를 16대까지 단일 배관으로 연결할 수 있어 시공성과 인테리어 기능을 높였으며, 기존의 가변기류시스템에 비해 확실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능입니다.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통해서 모든 방의 에어컨 작동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기반으로 오는 2003년에는 이 Modular Ductless 시스템 판매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삼성전자 냉장고들이 2001년에는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연구개발에 의해 소음은 5dB, 전력소모는 40%까지 낮추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40건의 국제특허까지 출원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2001년 한 해동안 우리나라의 냉장고 시장 점유율 36%를 차지 했으며, 양문형 냉장고는 세계 12개 국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세계시장 점유율 8%를 차지했습니다. 2002년에는 이러한 수치를 두 배로 늘려 세계 20개 국 이상에서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2001년 삼성전자의 전자레인지는 2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 브랜드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2000년 20개 국가에서 5개 국 늘어난 25개 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2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01년에는 전자파가 3곳에서 전달되어 보다 골고루 조리할 수 있는 3면 입체 신가열 방식(New Wave Distribution System), 굽힘방지 세라믹 에나멜 내부 코팅, 사용하지 않을 땐 전력소모를 제로로 유지하는 기능 등을 혁신하여 제품 선호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2002년에도 계속해서 Convection Cooking 기능 및 네트워크 솔루션 등을 적용한 최신 모델들을 개발하여 업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세탁기 2001년에는 본격적으로 드럼 세탁기 분야에 진출하여 전체 매출을 15% 상승시켰습니다. 특히 CIS의 High-end 시장을 겨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세탁방식 프로그램을 적용한 슬림형 모델의 성공은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 개발과 동시에 멕시코와 인도의 생산 설비를 완성시켜 2002년 이후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 냉장고 SR-N759CSC

분리식 무선 웹패드가 장착된 멀티미디어형 냉장고, 완벽한 홈 네트워크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2. 인버터 전자레인지 공기밥 RE-IH700

인버터 기술을 채용하여 일반 밥솥이나 전기 밥솥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전자레인지입니다.

3. 진공 청소기 VC-J900

UV 공법을 적용하여 세균과 악취까지 없애주므로 집안을 항상 쾌적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에어컨 AS-S660

3단계 여과장치와 폭 12.5cm의 매끄러운 디자인- 실내에 구석구석까지 상쾌함을 제공합니다.

5. 세탁기 SEW-S803J

다양한 컬러와 폭 34cm의 슬림 디자인 적용으로 CIS 소비자 및 가정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2



3



4



5



“글로벌 경쟁력을 찾고 계십니까?
삼성전자의 핵심 부품들이 그 해답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TFT-LCD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 받으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Dell 컴퓨터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삼성전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희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제품과 기술력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의 전략적 제휴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을 획득하는 일이며, 시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를 만나는 것, 그 것은 소비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글로벌 경쟁력을 얻는 것입니다.

1



Memory Chips 2001년은 경기 침체, 설비 과잉으로 인한 메모리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업계 전체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0.13미크론 공정기술을 양산에 도입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위주로 생산제품을 조절하며, 차세대 300mm wafer 사업을 주도하는 등 제품 혁신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이러한 위기를 정면돌파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2001년 삼성전자의 DRAM 세계 시장점유율은 연간 23%에서 27%로 크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속적인 경쟁력 상승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01년 3월 삼성전자는 Dell 컴퓨터사와 메모리, TFT-LCD 패널, 모니터와 광디스크 드라이브 등을 아우르는 160억 달러 규모의 기술 및 연구개발분야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5월에는 업계 최초로 납과 할로겐 화합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모듈을 선보였으며, 9월에는 업계 최초로 0.12미크론 공정기술의 576Mb Rambus Dram을 발표하며 특화된 초고속 메모리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21세기 최대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 상해에 중국 판매법인을 설립했으며, DDR SDRAM 표준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JEDED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002년에는 상용 DRAM에서

특수 메모리와 SOC 제품으로의 전략적인 변화를 지속하면서, 메모리 제품의 전 영역에 걸쳐 고속, 대용량, 고효율의 제품을 출시해 업계 최고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2002년 31억 달러를 투자해 300mm wafer의 양산과 0.13미크론 공정기술의 완료 및 0.12미크론 기술의 도입, 5세대 TFT-LCD 라인 구축, 그리고 네트워크 메모리반도체의 라인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System LSI 제품 반도체 분야의

사업다각화는 대부분의 경쟁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한 2001년에도 삼성전자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입니다. 2001년 System LSI 사업은 강력한 LCD드라이버 IC, 스마트 카드 칩 판매호조와 SOC 제품의 주문 상승으로 종합 판매 23%에 해당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02년에는 0.13미크론 공정기술의 완전 도입으로 칩 사이즈 50% 이상 축소, 동작속도 최대 2배 향상, 소비전력 약 33% 감소 등 SOC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TFT-LCD 패널 전반적인 IT업계의 침체로 주춤했던 TFT-LCD 패널 사업은 2001년 후반 시작된 가격 경쟁력을

통한 수요 확대로 활기를 되찾으며 4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세계 최대 크기인 디지털 TV용 40인치 패널 개발에 성공했으며, 19인치 모니터를 업계표준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TV 시장에 발맞춰 15.3, 17, 22 그리고 40인치의 고해상도 TV 패널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편 2001년에는 휴대폰과 PDA 등 휴대기기용 컬러 TFT-LCD 패널을 100만 대 이상 수출했으며 전세계적으로 휴대폰의 차세대 비디오 데이터서비스 기능이 일반화되는 2002년에는 4배 가량의 매출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세대 라인이 완성되는 2002년 하반기에는 확대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패널 업계 전반의 주도권을 지속해서 장악해 나갈 것입니다.

1. TV용 40인치 TFT-LCD 패널

세계 최초로 30인치의 장벽을 넘었습니다. 고효율의 전력소모량과 높은 해상도를 바탕으로 벽걸이 TV시대를 열어갑니다.

2. 1.8 인치 TFT-LCD 패널

뚜렷한 화상, 빠른 화소(Pixel) 반응, 그리고 12비트 컬러의 비디오기능으로 동영상 휴대전화를 지원합니다.

3. LCD 드라이버 IC칩

업계 최초의 40미크론 피치 패키징기술을 적용하여 더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채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4. 스마트 카드 IC칩

16비트 칩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주요 운영시스템을 초고속으로 지원합니다.

5. 512Mb DDR D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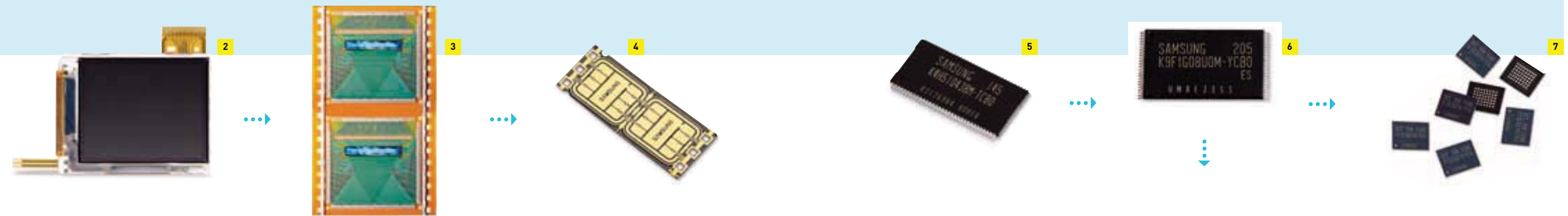
고용량 고성능을 지닌 업계 리더 제품으로 DDR333과 DDR400 속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1Gb NAND 플래시 메모리

업계 최초의 0.12미크론 기술력으로 성능을 70% 이상 개선했습니다. .

7. 32Mb UtrAM

업계 최초로 DRAM과 SRAM의 기능을 단일 칩에 집적한 제품으로 휴대폰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Digital -εCompany

Task 2: 최적화된 인프라와 신속한 업무 프로세스로 비즈니스의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가치를 혁신하는 것은 첨단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시너지와 가치가 창출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최선의 아이디어와 정보 테크놀로지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Digital-εCompany의 “ε”라는 측면은 각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가장 큰 효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2001년, 삼성전자는 47개 국에 있는 25개의 생산법인과 31개의 판매법인을 총괄하는 ERP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솔루션들은 전 세계 네트워크의 관리는 물론 비즈니스 파트너, 협력업체, 소비자와의 관계, 업무 스타일 등 비즈니스 전반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혁신을 통해 제품의 개발, 생산 기간 단축, 글로벌 기업과의 상호 Win-Win을 통한 가격 경쟁력 획득, 소비자 가치와 고객 충성도의 구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성 제고를 통한 수익률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aying the foundation for e-business



정보인프라 구축 →→ 정보는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시의 적절하고 올바른 정보는 경영 의사결정의 방향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2001년 8월 삼성전자는 e-비즈니스 인프라의 기간망인 글로벌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정보 인프라 부문에서도 앞서나가게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총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SAP R/3 시스템은 56개 해외 생산기지 및 판매법인과 연계하여 생산, 판매, 물류,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러한 글로벌 인프라의 구축과 활용은 세계의 어떤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글로벌 ERP 시스템은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확장형 플랫폼으로서, 2001년에는 초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성하기 위해 APS(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시스템과 파트너 협업 솔루션, 협력업체관리 솔루션(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리 솔루션(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비즈니스의 모든 단계에서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글로벌 e-비즈니스 인프라를 최적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Integrating
for maximum performance



Sharpening competitiveness
for profitability



Supply Chain Management →→ 적시적소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일이 SCM의 핵심입니다. 이는 협력회사와 공급자 그리고 소비자 간에 시스템이 통합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2001년, 삼성전자는 공급과 판매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급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글로벌 SCM을 국내의 법인으로 확산했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2001년 삼성전자의 글로벌 ERP 시스템은, 32개 생산기지, 49개 판매법인에 대해 수요예측, 리소스 관리, 생산계획 기능을 주간단위로 계획할 수 있는 사이클을 지원하는 SCM 솔루션인 APS로 통합하여 고객주문에 대해 Real Time 납기약속을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통합화는 생산과 판매를 좀 더 정확하게 동기화하여, 2002년에는 고객납기준수율을 10% 이상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선진 기법을 적용하여 비즈니스 파트너, 협력회사, 소비자 간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발부문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CPC(Collaborative Product Commerce)솔루션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디자인, 비용 절감, 출시 기간의 대폭 단축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부문에서는 삼성전자와의 Win-Win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 회사들과 글로벌 조달 전략을 수립, 실행,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솔루션을 구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과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솔루션을 구현하여 가치 증대는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 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얼마만큼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선두 기업과 하위 기업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경제 불황기에는 그 능력으로 흑자기업과 적자 기업이 구분됩니다. 삼성전자의 2001년도 재무 실적은 바로 이 점을 증명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2001년도에 2조 2천 95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원가절감 전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공개 입찰, 단가 조절, 글로벌 조달 등을 통해 자재비용을 약 3조 6천억 원 절감했으며, 이는 2000년도에 비해 무려 50% 절감된 수치입니다. 또한 생산 프로세스의 최적화와 23% 정도 향상된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국 내 사업장에서 약 1조 3천 443억 원의 제조 및 조립원가를 추가 절감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55%가 개선된 것입니다. 또한 자재비용을 낮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서 총원가 관리 및 가치 엔지니어링 방법론을 적용하고, 생산에서 자재비용 관리를 적용하는 등 최고의 경쟁력을 위한 삼성전자의 원가절감 전략은 더욱 세분화 되고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Reengineering processes
for quality results



Tapping into the
power of branding



6시그마 →→ 삼성전자는 최고의 제품 생산과 업무 효율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6시그마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에는 680명의 블랙벨트, 15명의 마스터 블랙벨트를 새로이 추가했으며, 추진 중인 개발 및 제조 프로젝트의 수도 650개에서 3천 3백 개로 5배 증가하여, 총 7천 700억 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얻었습니다. 2002년에는 750개의 블랙벨트와 43개 마스터 블랙벨트 추가를 목표로 6시그마를 모든 사업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조직과 제품 모두가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설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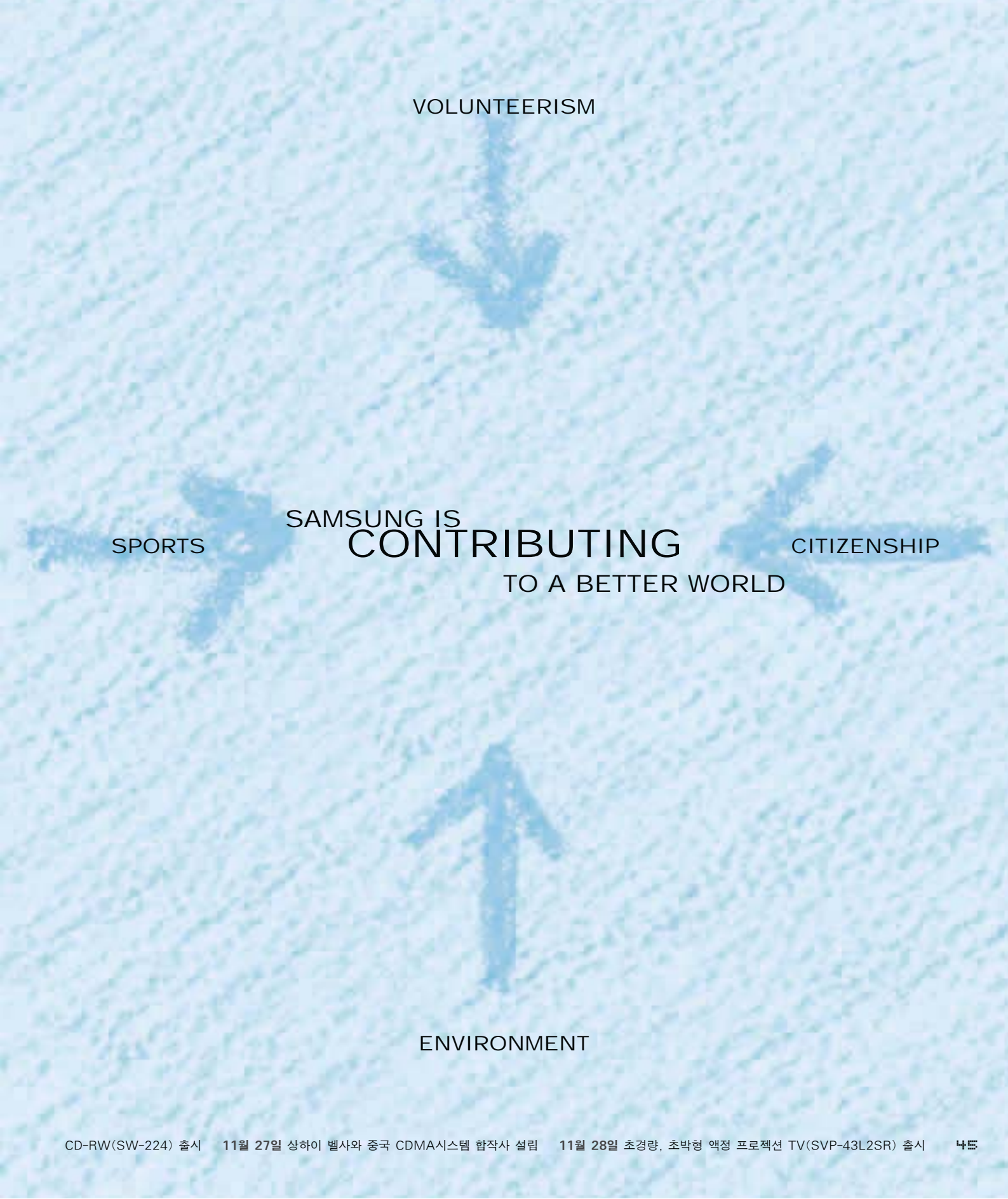
마케팅 →→ 기업의 가치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무형의 자산이 브랜드입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지가 지난 2001년 8월 발표한 “세계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63억 7천만 달러로 세계 4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 발표된 52억 2천만 달러보다 무려 22% 상승한 것으로, 순위에 든 100대 기업 중 두 번째로 빠른 브랜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Sony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가전제품 브랜드입니다. 이처럼 브랜드 가치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첨단 디지털 제품을 통한 상품 고급화 전략, 올림픽 후원 등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글로벌 마케팅과 광고 전략 등의 지속적인 노력들이 숨어있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고급 브랜드 이미지와 기존의 유통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의 대형 할인 매장인 Wal-Mart와 결별하고 Best Buy, CompUSA와 같은 전문 체인과 연계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마케팅의 첫 단계로서 전 세계 54개 에이전시에 분산되어 있던 광고 업무를 Foote, Cone & Belding으로 통합해 통일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2001년에는 사상 첫 글로벌 마케팅 및 광고 캠페인 출시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삼성전자 제품 및 브랜드의 핵심을 3단어에 집중시켰습니다. “Wow! - 삼성전자의 제품은 혁신적이고 흥미롭다”, “Simple! - 삼성전자의 제품은 편하고 쉽다” 그리고 “Inclusive! - 삼성전자는 소비자 가치와 서비스를 중시하는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Innovating to lead the digital convergence revolution



연구 개발 → 6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임직원 중 무려 1/4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14개의 R&D 센터에서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R&D 센터는 삼성전자의 비전인 디지털 컨버전스의 산실이자 교두보입니다. 삼성전자는 2001년 한 해 동안 총 매출의 약 7.5%를 R&D에 투자하여, 제품과 기술, 디자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총 1천 450개의 미국특허를 획득하여 미국내 특허 순위 5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의 63인치 플라즈마 TV와 40인치 TFT-LCD TV를 개발하여 초대형 TV의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또한 0.10 마이크론 4Gb DRAM을 만들어냄으로써 초소형의 세계 역시 정복했습니다. 이 밖에도 콤팩트 DVD, SPH-I300 PDA 폰 그리고 NEXiO S150 무선 Handheld PC 등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제품들과 CDMA 2000 1X, WCDMA 3G 네트워크 장비와 시스템 등이 2001년에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부분에선 모듈라 TV, IMT-2000 단말기, 디지털 카메라 등 3개의 제품이 미국 IDEA 디자인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독일의 iF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11개, 일본 G-마크전에서 12개의 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수준의 디자인력을 입증했습니다.



VOLUNTEERISM

SPORTS

SAMSUNG IS CONTRIBUTING TO A BETTER WORLD

CITIZENSHIP

ENVIRONMENT



올림픽 게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무선통신장비 부문 올림픽 파트너로 참여해 휴대폰을 비롯한 약 2만 5천 대의 첨단 디지털 무선통신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기여한 삼성전자는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도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기간 중 삼성전자 홍보관 OR@S을 운영하고 무료 3분 통화 Share The Moment Call을 제공하는 한편, 전세계 난민 아동들과 불우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Olympic Aid를 적극 후원해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2002 아시안 게임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에서의 성공적인 후원사업에 이어 2002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될 제14회 아시안게임에도 A/V 장비, 가전, 통신 부문의 장비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 네이션스컵 시리즈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명성과 전통을 자랑하는 네이션스컵 승마대회에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이번 임기까지 포함하여 총 3번에 걸쳐 타이틀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미, 유럽 지역에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1년 9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월드 최종전에서는 네덜란드가 최초로 우승했습니다.

삼성 달리기 축제 1995년 삼성전자 Magyar Rt. 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헝가리에서 시작된 삼성 달리기 축제는 이제 중앙 유럽의 가장 큰 스포츠 행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3회 삼성 달리기 축제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5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며, 5Km 원주자에 0.5달러의 기금을 책정해 러시아 아동병원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월드사이버게임 삼성전자는 21세기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격인 사이버게임 후원을 통해 창조적인 디지털 문화 육성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열린 제1회 월드사이버 게임의 예선전은 각 국가별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6개의 게임으로 치러졌습니다. 12월 초 서울에서 열린 결선에는 1백만 명의 참가자 중 예선을 통과한 37개 국 400명의 최종 주자들이 참여하여 30만 달러의 상금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펼친 결과 한국, 중국, 독일 순으로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지구촌을 하나되게 만드는 힘- 스포츠 정신입니다”

삼성전자는 스포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부터 12개의 프로팀 그리고 수백 개의 아마추어 팀을 포함한 수만 명의 선수들과 교류하며 후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이들과 승리의 영광과 패배의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전 세계인들을 하나되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스포츠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교육 삼성전자는 지난 1995년부터 전국 이웃들에게 컴퓨터 무료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사이버 시대를 맞이하여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 말까지 총 231만 3천 명이 삼성전자의 컴퓨터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창의력 올림피아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창의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1997년 시작된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전국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2001년 5회 대회부터는 특허청과 공동 주최로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문 다섯 명 한 팀이 창의력과 협동심을 발휘하여 주어진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으며, 대회 우승팀은 2002년 미국에서 열리는 Destination Imagination Global Finals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애가정 대학생 장학사업 삼성전자 본사 스태프 임직원들은 지난 1998년부터 「디딤돌 장학회」를 운영하여,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재할 의지가 강한 장애가정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00여 명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매월 조성된 기금을 모아 2001년도에는 총 10명의 장학생을 지원했습니다.

시각 장애인 컴퓨터 교육 삼성전자는 97년부터 시각장애인의 컴퓨터 교육을 통한 직업재활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삼성맹인안내학교 내에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에는 한국복지재단과 함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제1회 애뉴얼 인터넷 검색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이 행사에는 130명의 시각 장애인들이 참여하여 시각 장애인도 정보화 시대의 당당한 주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직원 자원 봉사 삼성전자의 기업문화에는 자원봉사의 전통이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총 265개의 자원봉사팀이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보고 아픔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 있으며, 전세계 1만 5천여 명이 넘는 삼성전자의 자원 봉사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봉사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미소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의 기업문화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사회공헌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으며, 1만 5천여 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이러한 활동에 한가지 보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소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혜택을 받은 자들이 보여주는 진심어린 미소야말로 이 모든 활동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경영의 녹색화 삼성전자는 1996년 5월 이후 환경, 안전, 보건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전 사업장의 녹색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안전관리, 위험물 보관 JIT(Just In Time)체제 구축, TMS(Telemetering System)운영 등 과학적인 환경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천하는 한편 환경안전체험관, 사업장 환경안전 업무의 글로벌 표준 구축 등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환경 안전에 대한 전 임직원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의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ISO 14001 및 OHSAS 18001 (국제 안전보건 경영체계)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제품의 녹색화 삼성전자는 제품 개발 시 디자인과 기능성, 품질, 비용과 더불어 환경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과정 동안 친환경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조립, 분해, 재활용 및 서비스성을 고려한 설계 등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과학적인 설계 지원 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세탁기의 경우 미국 EPA의 Energy Star마크, 모니터는 또한 국제 환경마크인 스웨덴의 TCO 95, TCO 99를 획득하는 등 국내외 각종 환경/에너지 마크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오늘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더 깨끗하고 푸른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삼성전자는 환경,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경영, 제품, 제조공정, 사업장, 지역사회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성장을 위해 내일의 환경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 아래 지역사회의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에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의 녹색화 삼성전자는 모든 공장에서 원류관리(Source Control)활동을 통해 생산공정을 환경친화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음파 펀칭기를 이용하여 제품 폐기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포장재질 개선, 프린터 기관 자동검사 등 제조공정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온난화 가스인 PFC의 배출량 감축기술, 저전압액정 리사이클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과 수자원보호를 위해 폐열 회수 활용, 불산폐수 처리시스템 구축/가동, 초순수 시설 리클레임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자원 절약과 오염의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녹색화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3無(무재해, 무질병, 무공해) 사업장 구현을 위해 국내 법규보다 엄격한 내부관리 기준을 세우고 24시간 모니터링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가족 협의회와 공동으로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녹색화 삼성전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산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 각 사업장 별로 1사업장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정화운동, 그린 달리기 대회 개최, 환경 자매학교 운영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화기업 자매결연 및 환경안전 관리 지원, 자연친화 생태연못 조성 등 기업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닌 함께 하는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그린 파트너십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미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품과 네트워크의 통합인 디지털 컨버전스 혁명을 통해, 이제 전자 산업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도전과 기회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자유로움 안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는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새롭고 흥미진진한 경험들을 만날 수 있는 디지털의 신세계 - **Samsung Digita//**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inancial Report 2001



본 책자의 재무관련 자료는 계열사와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은 삼성전자 본사의 재무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삼성전자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삼성전자주식회사의 2001년 12월 31일과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회사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경영자에 의한 중요한 추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삼성전자주식회사의 2001년 12월 31일과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당기중 삼성그룹내 관계회사 및 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액등은 1,402,703백만원과 12,910,292천불이며, 2001년 12월 31일 현재 관련 채권 잔액은 370,680백만원과 65,050천불입니다.

(2) 삼성자동차(주) 채권금융기관들과의 합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와 삼성계열사들은 1999년 9월 삼성자동차(주)의 채권금융기관들과 삼성자동차(주) 처리와 관련하여 합의를 체결하였는 바, 삼성자동차(주)의 회사정리 신청과 관련하여 삼성자동차(주)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출연된 삼성생명보험(주) 주식 350만주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이 2,450,000백만원에 부족하게 될 경우 삼성그룹 30개 계열사들과 함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자본출자 또는 후순위채권매입방법 등으로 그 부족액을 부담하거나,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초과액을 배분받을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 일 현재 삼성생명보험(주) 주식의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동 합의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경제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회사의 영업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시작된 우리나라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전반적 경제침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이러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 일 회 계 법 인
2002년 2월 1일

대차대조표

(단위:천 원)

제 33기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제 32기 : 2000년 12월 31일 현재		제 33 (당) 기		제 32 (전) 기	
과 목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1) 당 좌 자 산					
1. 현금및현금성가물		(6,755,602,675)		(7,756,441,262)	
2. 단기금융상품		(4,790,697,253)		(4,953,677,637)	
3. 유가증권		990,370,795		1,159,022,273	
4. 매출채권		1,832,503,518		1,442,289,507	
5. 대손충당금		3,290,804		3,792,114	
6. 미수금		901,500,894		1,291,888,806	
7. 미수수익		13,757,635		129,404,961	
8. 선급금		1,879,280		870,200	
9. 선급비용		18,793		8,702	
10. 예치보증금		426,490,006		674,932,315	
11. 전도금		388,385		-	
12. 통화선도		7,050,590		15,232,211	
13. 통화선도		81,418,665		58,632,668	
14. 기타		1,277,071		14,346,074	
15. 기타		323,212,567		218,912,651	
16. 기타		150,669,973		160,287,992	
17. 기타		3,053,568		4,694,708	
18. 기타		-		9,069,291	
(2) 재 고 자 산		(1,964,905,422)		(2,802,763,625)	
1. 상품		164,726,201		286,054,801	
2. 재품		278,211,695		451,489,525	
3. 반제품		20,529,762		20,721,491	
4. 재공품		762,260,746		961,869,596	
5. 원재료		567,612,463		855,554,193	
6. 저장품		92,794,561		96,722,465	
7. 미착품		78,769,994		130,351,554	
II. 고 정 자 산		(21,163,803,667)		(19,138,605,221)	
(1) 투 자 자 산		(7,693,906,555)		(6,548,760,322)	
1. 장기금융상품		683,000		258,000	
2. 투자유가증권		6,499,612,670		5,409,741,103	
3. 장기성매출채권		15,673,385		7,686,080	
4. 대손충당금		1,461,087		3,502,222	
5. 현재가치할인차금		1,993,700		1,366,079	
6. 기타		12,218,598		2,817,779	

계속

대차대조표

(단위:천 원)

과 목	제 3 3 (당) 기		제 3 2 (전) 기	
	금	액	금	액
4. 장 기 대 여 금	38,131,306		66,978,463	
대 손 총 당 금	134,914		6,853,261	
현재가치할인차금	-	37,996,392	49,662	60,075,540
5. 보 증 금		369,084,803		411,152,293
6. 장 기 선 급 비 용		397,979,541		486,509,110
7. 이 연 법 인 세 차		376,331,551		178,206,497
(2) 유 형 자 산		(13,232,499,043)		(12,324,428,649)
1. 토 지		1,826,143,870		1,778,542,402
2. 건 물	3,040,972,122		2,420,800,450	
감가상각누계액	410,608,219	2,630,363,903	291,407,875	2,129,392,575
3. 구 축 물	175,830,936		147,807,401	
감가상각누계액	50,998,548	124,832,388	39,306,107	108,501,294
4. 기 계 장 치	15,800,428,677		12,415,301,575	
감가상각누계액	8,458,134,366	7,342,294,311	5,760,161,055	6,655,140,520
5. 공 구 기 구 비 품	1,090,368,869		1,047,094,582	
감가상각누계액	715,413,557	374,955,312	686,544,032	360,550,550
6. 차 량 운 반 구	77,201,443		71,676,496	
감가상각누계액	28,554,147	48,647,296	22,434,742	49,241,754
7. 건 설 중 인 자 산		872,276,027		1,160,316,481
8. 미 착 기 계		12,985,936		82,743,073
(3) 무 형 자 산		(237,398,069)		(265,416,250)
1. 영 업 권		8,910,000		6,265,000
2. 산 업 재 산 권		226,014,872		256,347,261
3. 기타의 무형자산		2,473,197		2,803,989
자 산 총 계		27,919,406,342		26,895,046,483

계속,

대차대조표

(단위:천 원)

과 목	제 3 3 (당) 기		제 3 2 (전) 기	
	금	액	금	액
부 채				
I. 유 동 부 채		(6,314,242,145)		(8,608,448,502)
1. 매 입 채 무		1,527,056,229		1,492,046,020
2. 단 기 차 입 금		-		14,217
3. 미 지 급 금	1,470,767,106		1,697,547,216	
현재가치할인차금	2,415,892	1,468,351,214	-	1,697,547,216
4. 선 수 금		257,055,827		285,396,016
5. 예 수 금		381,927,734		281,054,836
6. 미 지 급 비 용		1,404,386,593		1,162,008,323
7. 미 지 급 법 인 세		48,693,399		896,957,557
8. 미 지 급 배 당 금		254,187,361		422,741,482
9. 유 동 성 장 기 부 채	956,081,212		2,372,809,681	
사채할인발행차금	116,547	16,138,258	502,263	
사채할중발행차금	-	-	-	
장기미지급이자	9,079,186	965,043,851	-	2,357,173,686
10. 선 수 수 익		1,641,905		1,265,665
11. 통 화 선 도		2,092,000		8,971,000
12. 이 자 울 스 압		3,806,032		3,272,484
II. 고 정 부 채		(2,131,415,046)		(2,093,750,701)
1. 사 채	1,721,839,790		1,244,320,415	
사채할인발행차금	25,478,695	6,378,785		
장기미지급이자	16,470,132	14,018,755		
전 환 권 조 정	17,183,367	1,695,647,860	21,194,843	1,230,765,542
2. 장 기 차 입 금		43,927,617		473,102,602
3. 장 기 미 지 급 금	244,838,357		303,180,821	
현재가치할인차금	40,761,643	204,076,714	58,034,486	245,146,335
4. 퇴 직 금 여 총 당 금	470,853,510		363,406,250	
국민연금전환금	22,326,262	27,769,854		
퇴직보험예치금	260,764,393	187,762,855	190,900,174	144,736,222
부 채 총 계		8,445,657,191		10,702,199,203

계속,

대차대조표

(단위:천 원)

과목	제 3 3 (당) 기		제 3 2 (전) 기	
	금	액	금	액
자 본				
I. 자 본 금		(882,117,170)		(881,675,130)
1. 보 통 주 자 본 금		762,650,035		762,207,995
2. 우 선 주 자 본 금		119,467,135		119,467,135
II. 자 본 잉 여 금		(5,692,250,082)		(5,686,653,290)
1. 주 식 발 행 초 과 금		3,848,791,598		3,843,442,538
2. 기 타 자 본 잉 여 금		1,843,458,484		1,843,210,752
III. 이 익 잉 여 금		(13,352,987,273)		(10,754,427,097)
1. 이 익 준 비 금		441,289,000		440,789,000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3,512,100,829		2,512,100,829
3. 재 무 구 조 개 선 적 립 금		204,815,000		204,815,000
4. 해 외 시 장 개 척 준 비 금		510,750,423		510,750,423
5. 해 외 투 자 손 실 준 비 금		164,982,454		164,982,454
6. 연 구 및 인 력 개 발 준 비 금		5,436,457,908		3,838,397,908
7. 수 출 손 실 준 비 금		167,749,074		167,749,074
8. 자 사 주 처 분 손 실 준 비 금		200,000,000		200,000,000
9. 시 설 적 립 금		2,714,811,000		2,714,811,000
10. 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31,585		31,409
(당기순이익-당기 : 2,946,935,473 -전기 : 6,014,530,192)				
IV. 자 본 조 정		((-)453,605,374)		((-)1,129,908,237)
1. 자 기 주 식		(-)962,247,859		(-)962,247,859
2. 전 환 권 대 가		26,905,774		29,434,909
3. 투 자 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손 실)		149,241,489		(-)287,568,317
4. 주 식 매 수 선택 권		336,301,254		93,745,514
5. 파 생 상 품 평 가 손 실		(-)3,806,032		(-)3,272,484
자 본 총 계		19,473,749,151		16,192,847,28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7,919,406,342		26,895,046,483

손익계산서

(단위:천 원)

과목	제 3 3 (당) 기		제 3 2 (전) 기	
	금	액	금	액
I. 매 출 액		32,380,374,608		34,283,752,279
1. 국 내 매 출 액	10,509,894,818		10,903,383,976	
2. 수 출 액	21,870,479,790		23,380,368,303	
II. 매 출 원 가		24,514,732,782		21,993,377,770
1. 기 초 재 고 액	737,544,326		572,945,964	
2. 당 기 제 조 및 매 입 원 가	24,909,295,364		22,821,809,082	
3. 타 계 정 에서 대 체	2,320,739,088		5,139,261,205	
계	27,967,578,778		28,534,016,251	
4. 타 계 정 으 로 대 체	3,009,908,100		5,803,094,155	
5. 기 말 재 고 액	442,937,896		737,544,326	
III. 매 출 총 이 익		7,865,641,826		12,290,374,509
IV. 판 매 비 와 관 리 비		5,570,308,129		4,855,219,849
1. 급 여	360,088,764		369,566,573	
2. 퇴 직 급 여	49,054,259		35,441,860	
3. 복 리 후 생 비	51,561,314		54,162,467	
4. 여 비 교 통 비	47,534,819		41,217,454	
5. 차 량 유 지 비	10,689,925		10,551,721	
6. 통 신 비	28,069,551		25,137,835	
7. 세 금 과 공 과	55,271,458		56,790,194	
8. 보 험 료	29,012,251		22,575,217	
9. 지 급 수 수 료	824,889,536		939,679,202	
10. 임 차 료	12,473,903		14,666,185	
11. 감 가 상 각 비	112,186,120		102,621,207	
12. 무 형 자 산 상 각 비	10,524,885		9,726,527	
13. 소 모 품 비	17,237,004		37,013,913	
14. 수 선 비	14,020,881		21,185,238	
15. 교 제 비	3,434,016		3,375,710	
16. 조 사 연 구 비	19,620,024		15,629,919	
17. 교 육 훈 련 비	36,793,536		27,866,789	
18. 도 서 인 쇄 비	5,889,956		5,459,887	
19. 행 사 비	15,564,440		14,634,066	
20. 회 의 비	14,924,093		18,587,854	

계속

손익계산서

(단위:천 원)

제 33기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제 32기 : 2000년 12월 31일 현재		제 33 (당) 기		제 32 (전) 기	
과 목	금	액	금	액	
21. 광 고 선 전 비	517,548,582		374,449,272		
22. 판 촉 비	292,848,712		171,849,797		
23. 운 반 비	339,935,248		285,645,185		
24. 수 도 광 열 비	10,120,918		6,411,508		
25. 해외시장개척비	364,971		2,027,994		
26. 애프터서비스비	511,146,536		239,475,748		
27. 대 손 상 각 비	16,579,087		8,994,502		
28. 해외지점관리비	20,912,412		17,086,748		
29. 기 업 흥 보 비	197,995,463		276,738,550		
30. 판 매 장 려 금	250,354,346		230,342,499		
31. 경 상 개 발 비	510,810,974		373,141,476		
32. 연 구 비	1,022,557,588		946,629,028		
33. 주 식 보 상 비 용	119,365,005		58,995,342		
34. 잡 비	40,927,552		37,542,382		
V. 영 업 이 익		2,295,333,697		7,435,154,660	
VI. 영 업 외 수 익		1,820,503,821		2,010,392,140	
1. 이 자 수 익	123,143,011		147,156,361		
2. 배 당 금 수 익	3,311,619		9,270,984		
3. 수 수 료 수 익	341,042,822		320,369,251		
4. 임 대 료	41,491,788		43,481,403		
5. 유가증권처분이익	143,144		-		
6. 유가증권평가이익	50,711		9,548,379		
7. 외 환 차 익	239,248,816		299,070,108		
8. 외 화 환 산 이 익	47,385,591		34,121,680		
9. 지분법평가이익	784,790,351		871,326,886		
10. 투자자산처분이익	12,414		1,016,307		
11. 유형자산처분이익	15,276,537		28,459,459		
12. 법 인 세 환 급 액	55,600		4,617,578		
13.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8,740,026		16,893,888		
14. 사 채 상 환 이 익	41,764		-		
15. 파생상품거래이익	4,432,000		3,141,472		
16. 파생상품평가이익	-		9,069,291		
17. 잡 이 익	211,337,627		212,849,093		

계속

손익계산서

(단위:천 원)

제 33기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제 32기 : 2000년 12월 31일 현재		제 33 (당) 기		제 32 (전) 기	
과 목	금	액	금	액	
VII. 영 업 외 비 용		1,033,230,335		1,498,732,649	
1. 이 자 비 용	205,145,010		343,367,140		
2. 기타의대손상각비	12,411,837		22,312,124		
3. 매출채권처분손실	91,668,917		135,845,585		
4. 유가증권처분손실	3,678,709		346,766		
5. 유가증권평가손실	177,354		9,014,356		
6. 재고자산평가손실	54,128,714		-		
7. 외 환 차 손	242,918,220		279,048,744		
8. 외 화 환 산 손 실	91,492,492		237,838,325		
9. 기 부 금	29,853,419		170,533,223		
10. 투자자산감액손실	13,693,611		13,149,266		
11. 투자자산처분손실	7,290,948		36,411,398		
12. 유형자산처분손실	60,318,149		23,325,284		
13. 사 채 상 환 손 실	-		7,407,666		
14. 파생상품거래손실	13,415,299		25,568,945		
15. 파생상품평가손실	839,000		8,971,000		
16. 잡 손 실	206,198,656		185,592,827		
VIII. 경 상 이 익		3,082,607,183		7,946,814,151	
IX. 특 별 이 익		-		153,634,395	
1. 채 무 면 제 이 익	-		229,708		
2. 보 험 차 익	-		125,553		
3. 기 타 특 별 이 익	-		153,279,134		
X. 특 별 손 실		-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082,607,183		8,100,448,546	
XII. 법 인 세 비 용		135,671,710		2,085,918,354	
XIII. 당 기 순 이 익		2,946,935,473		6,014,530,192	
기본주당경상이익					
- 당기 : 17,461원, 전기:34,291원					
기본주당순이익					
- 당기 : 17,461원, 전기:35,006원					
희석주당경상이익					
- 당기 : 17,230원, 전기:33,694원					
희석주당순이익					
- 당기 : 17,230원, 전기:34,393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천 원)

과 목	제 3 3 (당) 기		제 3 2 (전) 기	
	금	액	금	액
I. 처분전이익잉여금		2,852,778,946		5,935,438,196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1,409		31,989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등	-		6,761,574	
3. 지분법적용회사의 잉여금변동	(9,875,345)		-	
4. 중간배당액	(84,312,591)		(85,885,559)	
주당배당금(률) : 500원(10%)				
5. 당기순이익	2,946,935,473		6,014,530,192	
II.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320,459,670
1.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37,990,685	
2. 해외투자손실준비금	-		48,400,000	
3.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184,700,000	
4. 수출손실준비금	-		49,368,985	
합 계		2,852,778,946		6,255,897,866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2,852,747,361		6,255,866,457
1. 이익준비금	500,000		53,000,000	
2. 기업합리화적립금	1,000,000,000		1,000,000,000	
3. 배 당 금	254,187,361		422,670,457	
가. 현금 배당	(254,187,361)		(422,670,457)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1,500원(30%)				
전기:2,500원(50%)				
우선주 - 당기:1,550원(31%)				
전기:2,550원(51%)				
4.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1,598,060,000		2,000,000,000	
5.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		200,000,000	
6. 시설적립금	-		2,580,196,000	
IV. 차기이월이익잉여금		31,585		31,409

제33기 처분확정일:2002년 2월 28일
제32기 처분확정일:2001년 3월 9일

현금흐름표

(단위:천 원)

과 목	제 3 3 (당) 기		제 3 2 (전) 기	
	금	액	금	액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290,782,000		9,455,818,389
1. 당기순이익	2,946,935,473		6,014,530,192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4,186,965,294		4,496,835,181	
가. 감 가 상 각 비	3,144,327,437		2,626,510,027	
나. 무형자산감가상각비	41,917,482		39,719,069	
다. 퇴 직 금 여	217,213,103		160,523,572	
라. 대 손 상 각 비	28,990,924		31,306,626	
마. 매 출 채 권 처 분 손 실	91,668,917		135,845,585	
바. 유 가 증 권 처 분 손 실	3,678,709		346,766	
사. 유 가 증 권 평 가 손 실	177,354		9,014,356	
아. 외 화 환 산 손 실	91,492,492		237,838,325	
자. 투 자 유 가 증 권 감 액 손 실	13,693,611		13,149,266	
차. 투 자 자 산 처 분 손 실	7,290,948		36,411,398	
카.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60,318,149		23,325,284	
타. 사 채 상 환 손 실	-		7,407,666	
파. 파 생 상 품 평 가 손 실	839,000		8,971,000	
하. 파 생 상 품 거 래 손 실	13,415,299		-	
거. 재 고 자 산 폐 기 손 실 등	179,616,270		114,134,283	
너. 사 채 할 인 발 행 차 금 의 상 각	18,358,049		30,012,376	
더. 장 기 미 지 급 이 자 의 발 생	11,530,563		10,908,337	
러. 전 환 권 조 정 의 상 각 등	2,385,771		2,460,491	
머.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의 상 각	17,495,476		15,894,301	
버. 주 식 보 상 비 용	242,555,740		93,745,514	
서. 법 인 세 비 용	-		899,310,939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1,057,551,200		1,118,591,611	
가. 유 가 증 권 처 분 이 익	143,144		-	
나. 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50,711		9,548,379	
다. 외 화 환 산 이 익	47,385,591		27,643,050	
라. 지 분 법 평 가 이 익	784,790,351		871,326,886	
마. 투 자 자 산 처 분 이 익	12,414		1,016,307	
바.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15,276,537		28,459,459	
사. 투 자 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8,740,026		16,893,888	
아. 사 채 상 환 이 익	41,764		-	
자. 파 생 상 품 평 가 이 익	-		9,069,291	
차. 파 생 상 품 거 래 이 익	4,432,000		-	
카. 사 채 할 증 발 행 차 금 의 환 입	502,263		667,193	
타.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의 환 입	49,662		688,024	
파. 기 타 특 별 이 익	-		153,279,134	
하. 법 인 세 비 용 의 회 입	196,126,737		-	

계속

현금흐름표

(단위:천 원)

과목	제 3 3 (당) 기		제 3 2 (전) 기	
	금	액	금	액
제 33기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제 32기 : 2000년 12월 31일 현재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214,432,433		63,044,627	
가.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73,028,758		(697,751)	
나. 미수수익의 증가	(9,845,903)		(65,522,394)	
다. 선급금의 증가	(41,433,875)		(18,126,650)	
라. 선급비용의 증가	(104,299,915)		(17,959,161)	
마. 예치보증금의 감소	9,670,366		11,449,282	
바. 전도금의 감소	2,026,917		1,921,439	
사.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876,728,894		(488,361,559)	
아. 장기성매출채권의 감소(증가)	(9,400,819)		12,178,403	
자. 매입채무의 증가	28,590,801		68,396,233	
차. 선수금의 감소	(28,383,642)		(53,081,397)	
카. 예수금의 증가	100,332,583		16,830,478	
타. 미지급비용의 증가	239,492,656		409,340,228	
파. 미지급법인세의 증가(감소)	(848,264,158)		290,014,815	
하.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376,240		(1,651,359)	
거. 퇴직금의 지급	(110,557,395)		(68,872,692)	
너.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791,552		1,259,149	
더.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5,443,592		6,676,581	
러. 퇴직보험예저금의 증가	(69,864,219)		(40,749,018)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228,402,342)		(6,186,812,439)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004,571,815		8,860,468,955	
가. 유가증권의 처분	3,324,330		2,378,347,992	
나. 단기대여금의 감소	2,097,900		1,543,579	
다. 미수금의 감소	4,426,060,404		5,522,883,460	
라.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209,500	
마. 투자유가증권의 처분 등	134,031,466		142,963,660	
바. 장기대여금의 감소	32,127,449		311,626,474	
사. 보증금의 감소	80,726,723		140,113,657	
아. 장기선급비용의 감소	213,058,554		97,832,002	
자. 토지의 처분	37,044,235		10,566,258	
차. 건물의 처분	46,071,568		6,095,393	
카. 구축물의 처분	407,042		650,000	
타. 기계장치의 처분	25,377,692		15,911,056	
파. 공구기구비품의 처분	2,858,572		1,958,748	
하. 차량운반구의 처분	1,284,114		17,678,808	
거. 산업재산권의 감소	101,766		-	
너. 전략시스템사업부의 매각	-		211,088,368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232,974,157		15,047,281,394	
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88,759,012		793,946,319	
나. 유가증권의 취득	2,806,519		2,136,393,351	
다. 단기대여금의 증가	3,106,980		1,529,536	

계속

현금흐름표

(단위:천 원)

과목	제 3 3 (당) 기		제 3 2 (전) 기	
	금	액	금	액
제 33기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제 32기 : 2000년 12월 31일 현재				
라. 미수금의 증가	4,177,749,568		5,495,533,634	
마.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425,000		-	
바. 투자유가증권의 취득	43,694,475		954,452,666	
사. 장기대여금의 증가	10,111,602		16,909,339	
아. 보증금의 증가	38,821,324		94,591,515	
자. 장기선급비용의 증가	124,528,985		112,225,015	
차. 토지의 취득	27,784,828		3,694,587	
카. 건물의 취득	11,320,901		41,172,383	
타. 구축물의 취득	6,424,563		1,654,088	
파. 기계장치의 취득	22,628,272		479,167,610	
하. 공구기구비품의 취득	78,402,060		87,759,876	
거. 차량운반구의 취득	7,019,069		7,060,013	
너. 건설중인 자산의 증가	4,032,130,806		4,270,926,253	
더. 미착기계의 취득	243,222,540		145,489,029	
러. 영업권의 취득	5,000,000		-	
머. 산업재산권의 취득	8,972,003		51,387,603	
버. 기타의 무형자산의 취득	65,650		330,069	
서. 칼라필터사업부의 양수	-		353,058,508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31,031,136)		(2,636,813,46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5,382,596,663		15,431,342,599	
가. 통화선도의 순변동	-		7,452,807	
나. 단기차입금의 차입	534,325,118		1,506,859	
다. 미지급금의 증가	23,822,737,855		15,205,055,809	
라. 사채의 발행	978,563,753		-	
마. 장기미지급금의 증가	46,969,937		217,284,700	
바. 신주발행비환입	-		42,424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7,613,627,799		18,068,156,061	
가. 단기차입금의 상환	534,339,335		1,542,153	
나. 미지급금의 감소	24,073,383,116		15,227,753,749	
다.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2,372,802,402		1,398,995,814	
라. 통화선도의 순변동	7,632,008		-	
마. 통화스왑의 감소	-		15,504,959	
바. 사채의 조기상환	247,320		286,907,666	
사. 장기미지급금의 감소	118,169,545		69,778,600	
아. 장기차입금의 조기상환	-		104,719,709	
자. 현금배당금의 지급	507,054,073		428,543,923	
차. 자기주식의 매입	-		534,409,488	
IV. 현금의 증가(감소)(I + II + III)	(168,651,478)		632,192,488	
V. 기초의 현금	1,159,022,273		526,829,785	
VI. 기말의 현금	990,370,795		1,159,022,273	

5개년 재무제표 요약

1997~2001(연말기준)	(단위:천 US \$)					(단위:백만 원)				
	2001	2000	1999	1998	1997	2001	2000	1999	1998	1997
매출액										
국내 매출액	\$7,926,014	\$8,222,763	\$7,029,885	\$5,380,693	\$5,663,406	₩10,509,895	₩10,903,384	₩8,850,625	₩6,494,497	₩8,013,719
수출액	16,493,575	17,632,254	13,714,980	11,259,056	7,386,318	21,870,480	23,380,368	17,267,161	13,589,680	10,451,641
	\$24,419,589	\$25,855,017	\$20,744,865	\$16,639,749	\$13,049,724	₩32,380,375	₩34,283,752	₩26,117,786	₩20,084,177	₩18,465,359
매출 원가	18,487,732	16,586,258	14,027,936	11,578,914	8,976,018	24,514,733	21,993,377	17,661,172	13,975,749	12,701,065
매출 총 이익	\$5,931,857	\$9,268,759	\$6,716,929	\$5,060,835	\$4,073,706	₩7,865,642	₩12,290,375	₩8,456,614	₩6,108,428	₩5,764,294
판매비와 관리비	4,200,836	3,661,553	3,157,358	2,492,518	2,055,176	5,570,308	4,855,220	3,975,114	3,008,469	2,908,074
영업 이익	\$1,731,021	\$5,607,206	\$3,559,571	\$2,568,317	\$2,018,530	₩2,295,334	₩7,435,155	₩4,481,501	₩3,099,959	₩2,856,220
영업외 수익										
이자 및 배당금 수익	\$95,365	\$117,969	\$180,890	\$279,383	\$120,977	₩126,455	₩156,427	₩227,741	₩337,215	₩171,182
외환 차익	180,429	225,543	212,448	863,231	1,321,352	239,249	299,070	267,472	1,041,919	1,869,713
외환 환산 이익	35,736	25,733	207,638	-	-	47,386	34,122	261,416	-	-
지분법 평가 이익	591,848	657,109	236,888	-	-	784,790	871,327	298,242	-	-
기타	469,551	489,779	470,591	371,563	290,965	622,624	649,446	592,473	448,477	411,715
	\$1,372,929	\$1,516,133	\$1,308,455	\$1,514,177	\$1,733,294	₩1,820,504	₩2,010,392	₩1,647,345	₩1,827,612	₩2,452,610
영업외 비용										
이자 비용	\$154,709	\$258,949	\$572,835	\$924,894	\$536,428	₩205,145	₩343,367	₩721,199	₩1,116,347	₩759,045
이연 상각	-	-	-	1,559,267	1,117,517	-	-	-	1,882,035	1,581,287
외환 차손	183,196	210,444	222,788	857,732	1,478,708	242,918	279,049	280,491	1,035,283	2,092,372
외환 환산 손실	68,999	179,365	84,666	-	-	91,493	237,838	106,595	-	-
재고자산평가손실	40,821	-	-	-	-	54,129	-	-	-	-
기타	331,484	481,508	576,914	375,354	508,878	439,546	638,479	726,334	453,053	720,062
	\$779,209	\$1,130,266	\$1,457,203	\$3,727,247	\$3,641,531	₩1,033,231	₩1,498,733	₩1,834,618	₩4,486,718	₩5,152,766
경상 이익	\$2,324,741	\$5,993,073	\$3,410,823	\$365,247	\$110,293	₩3,082,607	₩7,946,814	₩4,294,227	₩440,853	₩156,064
특별 이익	-	115,863	-	235,068	46	-	153,634	-	283,727	66
특별 손실	-	-	211,484	259,920	1,773	-	-	266,258	313,723	2,509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2,324,741	\$6,108,936	\$3,199,339	\$340,395	\$108,566	₩3,082,607	₩8,100,448	₩4,027,968	₩410,856	₩153,620
법인세 비용	102,316	1,573,091	681,148	80,895	21,283	135,672	2,085,918	857,566	97,640	30,116
당기 순이익	\$2,222,425	\$4,535,845	\$2,518,191	\$259,500	\$87,283	₩2,946,935	₩6,014,530	₩3,170,403	₩313,216	₩123,505
주당 순이익(US \$, 원)	\$13.17	\$26.40	\$14.49	\$2.14	\$0.93	₩17,461	₩35,006	₩19,214	₩2,832	₩1,232

Board Of Directors

2001년은 삼성전자 이사회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01년 3월 9일에는 이사진의 인원을 기존 6명의 외부 사장단과 20명의 구성원에서 7명의 외부 사장단과 14명의 구성원으로 감축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2001년에는 8차례의 회의과정에서 총 28개 항목의 안건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2001년 사업 및 경영계획에 대한 승인 및 6월의 배당금 고지안건(일배당 500원의 10%인 중간 현금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현재 3개의 대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영위원회는 2001년 30차례의 회의를 통해, 신속한 안건 결의와 행정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진에 의해 위임된 경영 문제들을 처리했습니다.

외부 이사진 3인으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회는 7차례의 회의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있도록 경영진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했습니다.

외부 사장단 추천위원회는 2번의 회의를 통해 이갑현 이사와 Goran S. Malm 이사를 지명하여 2001년 3월 9일부터 각각 3년의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외부 사장단은 또한 정규 회의 및 위원회 회의 외에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업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공식 안건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경영위원회

- 윤종용(위원장)
- 이운우
- 진대제
- 최도석

감사위원회

- 임성락(위원장)
- 황재성
- 이갑현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Franz-Hermann Hirlinger(위원장)
- 김석수
- 윤종용
- 최도석

2001/2002 이사회



이건희

- 삼성전자 회장(1998~현재)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회장(1998~현재)
-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1996~현재)
- 전경련 부회장(1987~현재)
- 삼성그룹 회장(1987~1998)



윤종용

-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1999~현재)
-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1996~1999)
- 삼성그룹 일본본사 대표이사 사장(1995~1996)
- 삼성전관 대표이사 사장(1993~1995)
-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1992~1993)



이학수

-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겸 삼성기입구조조정 본부장(1998~현재)
-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실장 사장(1996~1998)
-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1995~1996)
- 삼성화재 부사장(1993~1995)



이운우

- 삼성전자 Device Solution Network 총괄 대표이사 사장(1995~현재)
-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대표이사 부사장(1993~1995)
- 삼성전자 Memory사업 총괄 부사장(1992~1993)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장(1987~1992)



진대제

- 삼성전자 Digital Media Network 총괄 대표이사 사장(2000~현재)
-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사장, 중앙연구소장(1998~2000)
- 삼성전자 시스템 LSI사업부 대표이사 부사장(1997~1998)
- 삼성전자 반도체(1987~1997)



김인주

- 삼성기입구조조정본부 부사장(2001~현재)
- 삼성기입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전무(1999~2000)
- 삼성기입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상무(1998~1999)



김석수

- 사외이사(1999~현재)
- 김석수 법률사무소 대표(1997~현재)
- 신문윤리위원회(2000~현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993~1997)
- 대법원 대법관(1991~1997)



황재성

- 사외이사(2000~현재)
- 국제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0~현재)
- 김 & 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1999~현재)
- 서울지방국세청장(1996~1999)
- 국세청 조사국장(1995~1996)



이갑현

- 사외이사(2001~현재)
- Boston Consulting Group 고문(2001~현재)
- 한국외환은행 행정(1999~2000)
- 한국외환은행 상무이사(1997~1999)
- 한국외환은행 이사(1996~1997)
- 한국외환은행 부장(1991~1996)
- 한국외환은행 런던지점 차장(1980~1991)



최도석

-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사장(2001~현재)
-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대표이사 부사장(2000~2001)
-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1997~2000)



Franz-Hermann Hirlinger

- State of Barvaria Korea Office 대표(2001~현재)
- Bayerische Landesbank Seoul Office 소장(1997~현재)
- Bayerische Landesbank Tokyo Office 소장(1995~2001)
- Credit Suisse 수석 투자매니저 및 국제마케팅 책임자(1991~1995)



임성락

- 사외이사(2000~현재)
- 사외감사(1998~2000)
- 한국 FP협회 전문위원/전무/자격인증본부장(2000~현재)
- 국은투신운용 대표이사 사장(1998~2000)
- 한국장기신용은행 상무(1996~1998)



Tetsuo Iwasaki

- 사외이사(2000~현재)
- Applied Komatsu Technology Chairman/CEO/President(1993~현재)
- Applied Materials, Inc. Senior Advisor/Senior VP/Corporate Senior VP(1983~현재)
- Applied Materials Japan Chairman/CEO/Cofounder(1979~현재)



Goran S. Malm

- 사외이사(2001~현재)
- Icon Medialab Asia 회장 & CEO(2000~현재)
- Dell Computer Asia Pacific President 겸 Dell Computer Senior VP(1999~2000)
- GE Asia-Pacific President 겸 GE Senior VP(1997~1999)
- GE Medical System Asia President & CEO(1992~1997)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250 삼성본관 빌딩
Tel : 02-727-7114
Fax: 02-727-7985
www.sec.co.kr

국내 사업장

수원사업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 3동 416
Tel : 031-200-1114
Fax: 031-200-1530

기흥사업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산 24번지
Tel : 031-209-7114
Fax: 031-209-7049

구미사업장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9
Tel : 054-460-2114
Fax: 054-460-2111

천안사업장
충남 천안시 성성동 산 33-11번지
Tel : 041-529-7114
Fax: 041-529-6049

온양사업장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복수리 산74
Tel : 041-540-7114
Fax: 041-540-7049

광주사업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1
Tel : 062-950-6114
Fax: 062-950-6019

해외 네트워크

미국

판매법인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EA)
Tel : 1-201-229-4000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Inc. (STA)
Tel : 1-972-761-7005

Samsung Electronics Canada Inc. (SECA)
Tel : 1-905-819-5060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 (Zona Libre), S.A. (SELAPA)
Tel : 507-210-1122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 Miami, Inc. (SELAMI)
Tel : 1-305-594-1090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 Colombia, S.A. (SELACOL)
Tel : 571-633-4470

Samsung Electronics Argentina S.A. (SEASA)
Tel : 54-11-4308-4777

Samsung Semiconductor Inc. (SSI)
Tel : 1-408-544-4000

생산법인
Samsung Mexicana S.A. de C.V. (SAMEX)
Tel : 1-619-671-6000

Samsung Electronics Mexico S.A.S. de C.V. (SEM)
Tel : 525-686-0800

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 Ltda. (SEDA)
Tel : 55-11-5641-8500

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 (SAS)
Tel : 1-512-672-1000

*** American Distribution Center (ADC)
Tel : 1-858-642-5199

*** Samsung Information Systems America, Inc. (SISA)
Tel : 1-408-544-5400

유럽

판매법인
Samsung Electronics U.K. Ltd. (SEUK)
Tel : 44-181-391-0168

Samsung Electronics GmbH (SEG)
Tel : 49-6196-661000

Samsung Electronics France S.A.S. (SEF)
Tel : 33-1-4938-6525

Samsung Electronics Italia S.p.A. (SEI)
Tel : 39-02-921891

Samsung Electronics Nordic AB (SENA)
Tel : 46-8-590-966-00

Samsung Electronics Poland, Sp.Zo.O (SEPOL)
Tel : 48-22-608-4400

Samsung Electronica Portuguesa S.A. (SEP)
Tel : 351-21-425-1000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SEBN)
Tel : 31-70-307-2910

Samsung Semiconductor Europe GmbH (SSEG)
Tel : 49-6196-663000

Samsung Semiconductor Europe Limited (SSEL)
Tel : 44-181-380-7200

생산법인
Samsung Electronics Manufacturing (U.K.) Ltd. (SEMUK)
Tel : 44-1740-660000

Samsung Electronics Iberia, S.A. (SESA)
Tel : 34-93-862-9600

Samsung Electronics Hungarian Co., Ltd. (SEH)
Tel : 36-1-250-2311

* Europe Customer Satisfaction (ECS)
Tel : 441-95-220-7126

* European Logistics Service (ELS)

CIS

판매법인
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 (SEO)
Tel : 31-20-575-3012

Samsung Electronics Russia Co., Ltd. (SER)
Tel : 7-095-797-2344

Samsung Electronics Kiev Office (SEKO)
Tel : 380-44-490-6878

* Samsung Russia Service Center (SRSC)
Tel : 7502-564-8210

중앙 아시아 & 아프리카

판매법인
Samsung Electronics South Africa (Pty.) Ltd. (SSA)
Tel : 27-11-254-3600

Samsung Gulf Electronics FZE (SGE)
Tel : 971-4-225747

* Gulf Customer Satisfaction (GCS)
Tel : 9714-883-8416

아시아

판매법인
Samsung Asia Pte. Ltd. (SAPL)
Tel : 65-8333-200

Samsung Electronics Australia Pty. Ltd. (SEAU)
Tel : 61-2-9638-5200

Samsung Electronics Philippines Co. (SEPCO)
Tel : 63-2-526-3796

Samsung Japan Corporation (SJC)
Tel : 81-3-5641-9800

생산법인
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SEIN)
Tel : 62-21-893-4005

Thai Samsung Electronics Co., Ltd. (TSE)
Tel : 66-2-681-0501

Samsung Electronics (M) Sdn. Bhd. (SEMA)
Tel : 60-3-376-1068

Samsung Electronics Display Malaysia Sdn. Bhd. (SDMA)
Tel : 60-6-678-7914

Samsung India Electronics Ltd. (SIEL)
Tel : 91-1191-568251~2

Samsung Electronics India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Ltd. (SEIIT)
Tel : 91-11-693-2517

Samsung Vina Electronics Co., Ltd. (SAVINA)
Tel : 84-8-896-5500

Samsung Electronics Philippines Manufacturing Corporation (SEPHIL)
Tel : 63-49-545-9153

* Asia Customer Satisfaction (ACS)
Tel : 65-568-7500

중국

판매법인
Samsung Electronics Hong Kong Co., Ltd. (SEHK)
Tel : 85-2-2862-6900

Samsung Electronics Taiwan Co., Ltd. (SET)
Tel : 886-2-2758-9588

생산법인

Tianjin Tongguang Samsung Electronics Co., Ltd. (TTSEC)
Tel : 86-22-2628-0629

Tianjin Samsung Electronics Display Co., Ltd. (TSED)
Tel : 86-22-2455-6242

Tianjin Samsung Telecommunications Company (TSTC)
Tel : 86-22-2396-1234

Tianjin Samsung Electronics Co., Ltd. (TSEC)
Tel : 86-22-2532-3715

Huizhou Samsung Electronics Co., Ltd. (SEHZ)
Tel : 86-752-332-1401

Shandong Samsung Telecommunications Co., Ltd. (SST)
Tel : 86-631-562-6868

Shenzhen Samsung Kejian Mobile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 Ltd. (SSKMT)
Tel : 86-755-668-0200

Shanghai Bell Samsung Mobile Communications Co., Ltd. (SSM)
Tel : 86-21-5055-1620

Suzhou Samsung Electronics Co., Ltd. (SSEC)
Tel : 86-512-532-1234

Samsung Electronics Suzhou Semiconductor Co., Ltd. (SESS)
Tel : 86-512-761-2297

* China Customer Satisfaction (CCS)
Tel : 8610-6497-3366

삼성전자는 고객 여러분의 행복과 가치를 위해 디지털 컨버전스의 새 세상을 열어갑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뉴스와 기업 정보는 홈페이지 www.samsungelectronics.com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투자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IRTeam@samsung.co.kr 또는

IR팀(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250 삼성본관 24층)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